

2월28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12.85 (+10.21)		791.60 (+11.30)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797 (+0.114)		1322.60 (-0.40)

[MWC 2023]
SKT ‘이프랜드’
美·유럽·동남아
본격 진출
05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초과이익 재투자, 中 투자 금지 등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 까다로운 조건에 ‘독든 성배’ 우려

美 ‘칩스 포 아메리카’ 개시

美 상무부, 심사 기준 공개
보조금 규모 총 390억 달러

최선단 공정시설 지원 가능
지역 보육료 지원계획 요구
반도체 필요시 美 우선 공급

반도체 업계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생산성을 대폭 확대할 기회지만, 예상보다 까다로운 조건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3월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칩스 포 아메리카’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칩스 포 아메리카’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새로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미국에 2개 이상 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여러 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과 최첨단 D램 대량 생산시설 확충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 규모는 총 390억달러(한화 약 51조원)에 달한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3월 31일, 후 공정 시설은 6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반도체 자재와 장비와 연구개발시설 대상



3·1절 기념사 하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지원금 절차는 각각 늦봄, 가을에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는 관련 법안 발표 직후부터 지원 신청을 준비해왔다. 인텔과 마이크론 등 현지 업체는 물론, 대만 TSMC와 삼성전자도 현지에 대규모 증설 방침을 확정하고 강력한 동참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보조금 조건이 예상보다는 까다로운 탓에 다소 망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런던도 상무장관은 보조금 신청 직후 ‘백지수표’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단 지원 대상인 최첨단 반

도체 기준이 비메모리는 5나노, D램은 13나노 이하에 낸드플래시도 200단 이상이다. 말 그대로 최선단 공정을 미국에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와 TSMC만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아직 개발 중인 공정이다.

지원금 사용 조건도 복잡하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꼭 필요한 자금만 요청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재무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수익도 나눠야한다. 1억5000

만달러(약 1900억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 사업자 혹은 직원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원한 자금의 75%를 언급하며, 초과 이익을 다시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3월 중으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금을 받으면 중국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 ‘가드레일 조항’에 동의를 해야하는데, 중국을 포함한 ‘우려대상국가’에 10년간 반도체 시설을 짓

社告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100+

100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2일(수)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잇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은퇴 준비 재테크와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거시경제 전망과 ‘증시업탐정’,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주식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호지영 세무사(우리은행)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김동업 미래에셋상무의 은퇴 준비와 재테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행사명 : 2023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일 시 : 3월 22일(수) 14:00~17:1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방 식 : 선착순 현장참가 신청 및 웨비나(온라인으로 진행)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거나 투자하면 안된다. 미국 국방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 편에 서야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반도체 보조금이 TSMC와 현지 기업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보조금 신청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도 미국 상무부가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추가하면서 당초 목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목적도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보인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이 접으니 다 접는다… 폴더블폰 ‘춘추전국’

아너·오포 등 中 제조사들
MWC서 폴더블 기술 선포
애플도 최근 관련특허 획득
2025년 폴더블 아이폰 기대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 기업들과 애플이 뛰어든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폴드 시리즈를 과도하게 따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국 제조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접는

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애플도 최근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 애플의 폴더블 기기 출시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폴더블 기술을 채택한 자신들의 폼팩터를 대거 선보였다.

중국 제조사 ‘아너(HONOR)’는 ‘폴더블폰 ‘아너 매직Vs’와 플래그십 스마트폰 ‘매직5’ 시리즈의 출시를 알렸다.

아너는 이번 MWC에서도 삼성전자 바로 맞은편에 부스를 차리고 폴더블폰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매직Vs’는 후면 카메라 디자인 외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와 외형이 비슷하고 실제 사용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

려졌다. 512GB 기준 출고가는 1599유로(약 223만원)라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오포(Oppo)도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유사한 폴더블폰 ‘파인드 N2 플립’을 선보였다. 해당 스마트폰은 클램프(조개껍데기 디자인) 방식을 채택한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커버 디스플레이가 3.26인치로 Z 플립보다 더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너의 폴더블폰 ‘아너 매직Vs’ /아너

여기에 45~110도 사이의 모든 각도로 접을 수 있는 ‘플렉스폼 모드’를 지원해 Z 플립과 사용자 측면의 편의성도 유사하게 구현했다.

그런데도 제품 출고가가 1049유로(약 150만원)로 다른 폴더블폰에 비해 저렴했다. 화웨이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출시한 아웃폴딩 기법이 적용된 폴더블폰 ‘메이트Xs2’를 이번 MWC에 내놨다.

중국의 폴더블 시장 공세가 거센 가운데 애플의 폴더블 기기 개발도 ‘곧’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최근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3·1절 기념식서 이재명과 만나 대화없이 ‘짧은 악수’ /사진 뉴시스
▲ 이재명,尹정부 겨냥 “대한민국, 주권 제대로 행사하고 있나”

▲ 안민석 “이재명 사퇴 여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 北, 3·1절에 일본 비난… “반인륜 범죄에는 시효 없다”

▲ 김 “일본, 과거사 반성해야” 안 “한일관계, 경제·역사 분리 접근” /사진 뉴시스
▲ 美 국방부 “TTX서 北 핵·미사일 대응 논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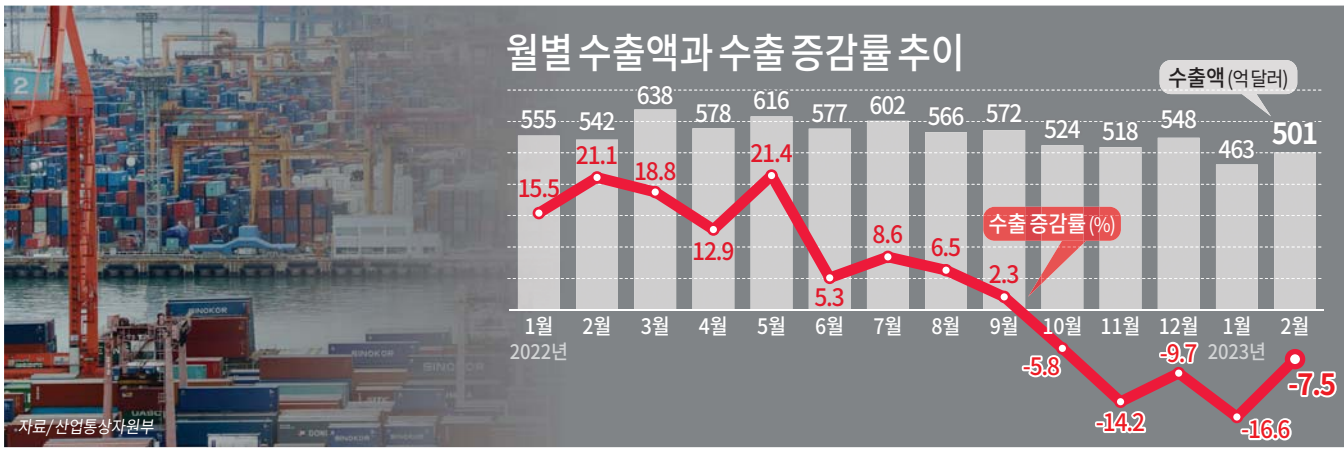
수출 7.5% 감소… 에너지 수입 증가에 1년째 ‘무역적자’

산업부, 2월 수출액 501억 달러
반도체 가격 하락에 수출액 급감
자동차·이차전지 등은 수출 증가
미국 등 9대 수출지역 증가 전환
중국수출 98.8억 달러로 24%↓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7.5% 감소하는 등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효과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도 9개월째 이어진 영향이 컸다. 반면, 에너지 수입은 증가하며 무역적자는 1년째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501억달러로 전년동월(541.6억달러) 대비 7.5%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이다. 전년동월 수출이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줬다. 다만, 2월 수출은 전달(1월, 463억달러) 대비 약 40억 달러 증가하며 월 수출규모는 50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정보통신) 품목 위주



로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이차전지·석유제품·일반기계 등은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모든 월 기준 최대, 이차전지 수출은 2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일반기계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59억6000만달러 수출에 그쳐 1년 전보다 42.5% 감소해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도체 내 수출비중이 큰 D램 고정가격의 경우 지난해 1분기 3.41달러에서 하락을 지속하며 올해 1~2월 1.81달러까지 떨어졌다.

또, 디스플레이(11.2억달러, -40.9%), 석유화학(40.6억달러, -18.3%), 철강(29.7억달러, -9.8%), 선

박(15.5억달러, -10.7%), 바이오헬스(10.7억달러, -32.1%) 등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반면, 자동차(56억달러, +47.1%), 석유제품(46.8억달러, +12.0%), 일반기계(44.5억달러, +13.0%), 차부품(20.2억달러, +13.3%), 이차전지(8.7억달러, +25.1%) 등 수출은 증가했다.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미국(90억달러, +16.2%), 유럽연합(62억달러, +13.2%), 중동(16.5억달러, +20.2%), 인도(15억달러, +11%)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미국은 지난 달 감소 이후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됐고,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중동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증가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영향으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98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4.2% 급감했다. 아세안(84.6억달러, -16.1%), 일본(23.6억달러, -4.9%), 중남미(18.5억달러, -19.1%), CIS(독립국가연합, 10.5억달러, -13.6%) 수출 역시 감소했다.

2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19.7%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6% 증가한 554억달러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153억달러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의 2월 평균(97억달러)보다 56억달러 많다.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은 전년대비 근소한 차이로 줄었지만, 동절기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가스 수입이 73.2% 급증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로 작년 3월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에너지 외 수입 규모 축소,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무역적자 규모는 1월(127억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월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주요국 수입수요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동절기 수요에 따른 에너지 수입이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1월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됐지만 큰 폭의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고금리, 글로벌 경기둔화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등 총력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전기·가스로 인상에, 소비자물가 더 오른다

현경연, 관리물가로 본 고물가 현상
1월 관리물가 상승률 전년비 5.8%↑
물가상승률 5.0%→5.2% 반등시켜

최근 전기·가스 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는 등 관리물가 상승세로 인해 고물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정부 전망과 상반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통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점진적인 가격 인상과 조정 등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 관리물가로 본 고물가 현상’에 따르면 1월 관리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8%로 추산된다. 이는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5.2%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관리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관리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하반기

기 플러스 전환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관리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전체 물가 불안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올해 1월 관리 품목의 물가 상승률 기여도가 1.1%포인트에 달해 물가상승률을 전월 5.0%에서 5.2%로 반등시켰다고 설명했다.

노시연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연내 전기료, 도시가스, 시내버스비 등 관리 품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관리물가 상승 폭은 확대될 전망으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3.9~4.4%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의 전망은 올 상반기에 고물가가 지속되다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정부 예상과 대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상반기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시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겠다”면서도 “향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관리 품목이 추가 인상될 수 있는데다 최근 안정된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관리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경우 물가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연구원은 관리 물가가 전체 물가 불안을 가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계획적인 사전 관리를 주문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관리 품목 중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에너지 가격 예측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물가 통제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가격 동결보다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가격 인상,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 분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won@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20% 환급

산업부, 가구당 최대 30만원 한도
장애인·국가유공자 가구 등 대상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절약과 효율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효율 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1~20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이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전체 예산(139.2억원)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장애인(기준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

〈품목별 최고등급 적용기준일〉		
품 목	등 급	적용기준일
냉장고	1	'18.4.1./'21.10.1
김치냉장고	1	'17.7.1.
에어컨	벽걸이	1
	그 외	1~3
세탁기	일반	1~2
	드럼	1
냉온수기	저장식	1
	직수식	1
전기밥솥	1	'18.4.1.
진공청소기	1~3	'19.1.1.
공기청정기	1	'18.1.1./'20.3.1
TV	1	'17.1.1./'21.10.1
제습기	1	'16.10.1.
의류건조기	1	'20.3.1.

* 제품의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
기 적용기준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 /산업부

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등 11종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 대상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의제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사업은 사업 재원이 소진될 경우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절감(약 4인기준 2100가구의 1년 전력사용량)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점유율 1.1% 폴더블폰, 성장 가능성은 커

» 1면 ‘삼성이 접으니 다 접는다’서 계속

해당 기술은 화면뿐만 아니라 기기 여러 부분을 터치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달 애플 분석 전문가인 대만 TF인터내셔널증권의 귀밍치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2024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폴더블 아이폰을 통해 시장 분위기를 파악·분석하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겠다는 전략을 펼칠 거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는 애플이 2024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폴더블 아이폰을 통해 시장 분위기를 파악·분석하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겠다는 전략을 펼칠 거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1.1% 수준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런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82%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 시장 공세가 강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종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비트코인 가격 연일 ‘출렁’

연초부터 물러코스터 시장 지속
전문가들 긴축강도 의견 엇갈려
3.5만弗 갈 것 vs 2만弗 이하 추락

미국이 최근 발표한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 우려를 키우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물러코스터장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가격변동이 지속될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만5000달러를 돌파했지만 최근 2만3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8일 만에 약 8%가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시장 전체 시가총액 규모도 6.1% 줄어 1조6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미 경제지표에 비트코인 하락

비트코인 하락 영향은 미국 경제 지표 불안으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움츠러든



미국 연방준비제도 건물

/AP·뉴시스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1월 PEC 물가지수 상승률은 5.4%로 지난해 12월 5.3%에서 오름세로 전환했다.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7%로 최고치를 찍은 후 계속둔화 중이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연준이 중시하는 PCE 물가마저 반등하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우려가

증폭된 것이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피벗(pivot·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 기대감을 지운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코인 전망, 상승 vs 하락 엇갈려

상승전망을 점치는 이들의 의견은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최고치 경신 ▲긴축 정점론 등이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직전 치인 39조1500억 해시레이트 수준을 넘어선 43조 해시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사용된 연산 처리 능력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블록 생성이 어려워져 동일 해시레이트 대비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즉, 비트코인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이야기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 포페(Michal van de Poppe)는 “상승 추세의 시장에서는 조정이 상대적으로 짧게 이뤄져 한 번의 테스트를 거친 후 조정장에서 과도한 매도가 일어나면서 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한다”며 “비트코

인이 2만5000달러를 돌파하면 3만~3만5000달러를 향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하락 전망을 예상하는 이들의 의견은 ▲IMF 암호화폐 시장 압박 ▲긴축 강화론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법정화폐의 지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IMF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암호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트맥스(BitMEX)’를 설립한 아서 헤이즈는 최근 크립토펀터(Crypto Bantter)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위험 자산과의 상관관계는 끊이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과 함께 급락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대규모 조정 시기에 비트코인이 2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빚 못 갚는 중·저신용자 급증 인뱅, 1년새 연체액 3배 불어

가파른 금리인상에 상환능력 ↓
신용대출 늘린 인터넷은행 악영향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 인터넷은행의 대출이 늘어나 연체금액이 1년 전보다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카오펀터·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급격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펀터 25.4%, 케이뱅크 25.1%, 토스뱅크 40.37%로 집계됐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KCB기준 820점 이하)에게 공급하는 대출로, 인터넷은행은 오는 2024년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이 목표로 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펀터 25%, 케이뱅크 25%, 토스뱅크 42%로, 토스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해 인터넷은행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올해 2월 41.2%를 돌파해 목표치(44%)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액별로 보면 카카오펀터의 지난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2조5975억원으로 1년 전(1조7166억원)과 비교해 51%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7510억원에서 2조265억원으로 2배 이상 늘고, 토스뱅크는 126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2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늘어난 만큼 단기 연체금액도 늘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잔액은 2915억9100만원이다. 지난해 1분기 말(1062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증가한 만큼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잔액도 크게 증가했다. 토스뱅크의 1개월 이상 연체대출은 619억원으로 1분기(11억원) 말보다 56배 이상 늘었다. 케이뱅크는 920억원으로 같은 기간 2.5배, 카카오펀터는 1377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연체율도 증가했다. 카카오펀터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49%로 1년전인 2021년 말(0.22%)과 비교해 0.12%포인트(p)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연체율도 3분기 기준 0.67%로 같은 기간 0.26%p 올랐고, 토스뱅크도 0.3% 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펀터는 현재 중위 구간에 집중된 금융이력부족 고객을 세분화해 중·저신용자를 선별하고 있다. 기존모형으로 거절된 중·저신용자 10명 중 1명은 우량한 중·저신용자로 추가 선별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사용하는 대안정보로 통신, 쇼핑 데이터 외에 전자책 등 도서구매 데이터, 운전이력 데이터 등을 추가한다.

토스뱅크는 토스를 통해 확대된 소비내역이나 금융생활 데이터 등을 확대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금융그룹

국민의 편에서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즘 같은 때는

KB증권에서 Parking!

조금 NO! 한도 NO!
(4월 전, 2023.02.10 기준, 개인)

단 하루만 맡겨도 연 3.7% 수익금이 붙는다

KB증권 발행어음형 CMA

파킹통장도 KB증권이 좋은 이유!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투자은행(B)만 가능하니까
(투자평가 사실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AA+ 높은 신용도로 믿을 수 있으니까
(신용등급 AA+, 2022.5.29. 한국신용평가)

자동투자 서비스로 알아서 투자해 주니까
(별도 신청 필요)

투자자를 똑똑! 개비증권

지금 바로 파킹하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496호(2023년 2월 16일~2024년 2월 15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발행어음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행어음은 만기 전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익률이 적용됩니다(중도 상환 수익률 시 홈페이지 참조). *발행어음 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회사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 한도를 제한하므로 발행 한도 초과 시 신규 또는 추가 매수가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사 사정에 의해 발행이 중단되어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CMA의 입금액은 발행어음에 투자됩니다. *발행어음은 발행사 신용등급(AA+, 2022.03.29.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은 발행사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증권

실적 날개 단 쿠팡, 2분기 연속 흑자내고 연매출 ‘신기록’

지난해 연매출 26조5917억 기록
영업적자 지난해 보다 92% 줄어
와우 멤버십 유료 회원 1100만명

쿠팡이 역대 최대 연매출 26조원을 올린 데다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만년 적자’ 기업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을 의심받았지만 수익 강화를 선언하고 1년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

1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분기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연 매출은 26조5917억원(205억8261만 달러, 연환율 1291.95원 기준)으로 전년도 21조646억원보다 26%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 적자 규모는 1447억원(1억1201만 달러)으로 지난해 1조7907억원 대비 92% 줄었다. 당기순손실 또한 1189억원으로 지난해 1조7653억원 대비 93% 감소했다.

지난해 쿠팡은 4분기 매출은 전년(6조65억원)보다 21%는 7조2404억원(53억2677만달러·분기 환율 1359.26원 기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33억원(8340만달러)로 3분기 1037억원에 이



쿠팡은 지난해 26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고 1일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쿠팡은 주요 물류센터 건립이 완료 돼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3자 물류 서비스까지 시작할 예정이다. /뉴시스

어 연속으로 영업흑자를 냈다. 당기 순이익 또한 1387억원(1억206만달러)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쿠팡의 활성고객 1811만5000명, 1인당 고객 매출은 294달러(40만원)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와우 멤버십 유료 회원 수는 전년 대비 200만명 늘어나 1000만명을 돌파(1100만명)했다.

쿠팡이츠, 쿠팡페이, 쿠팡플레이, 해외 사업 등 쿠팡의 지난해 신사업 매출

도 6억2802만달러(8302억4000만원)로 전년 대비 25% 늘어났다.

이번 실적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 실적은 쿠팡이 수년에 걸쳐 지속해온 투자와 혁신의 결과”라며 “아직 국내 유통 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이며 가격도 높고 상품도 제한적이다. 고객에게 더 다양하고 낮은 가격, 특별한 서비스로 더 좋은 대안을 만들 것이며, 고객이 ‘와우(wow·감동)’할 수 있는 새로운 순간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는 “장기적인 조정 예비타 가이던스를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며 “매분기 항상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하거나 동일한 성장률을 계속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마진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 예비타는 영업활동으로 번 실제 사업의 순수 현금흐름을 보는 지표로, 해당 수치가 흑자일 경우 연간 기준 흑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쿠팡의 조정 예비타는 4925억원(3억8121만달러)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쿠팡의 흑자 전환은 앞서 투자한 물류시설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투자 지출이 크게 줄어들고 대신 CAPA는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

2022년 기준 운영 중인 쿠팡의 물류센터는 전국 30개 지역 100여 개이며, 올해 중 대구FC를 포함해 몇 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민의 70%가량이 쿠팡의 배송센터 근방 10km 내에 거주하고 있어 쿠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다. 기존 오프라인 점포 없이 직접 물류센터를 건립하며 배송권역을 확장한 만큼 그동안 쿠팡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지출했고 이 점이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 됐다.

투자 지출 규모의 축소 외에 신사업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어 수익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쿠팡친구(배송원)를 모두 택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이동하는 등 배송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3자 물류(3P) 사업을 위한 초석으로 해석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3자 배송은 직매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셀러들에게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익일 배송 자체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3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셀러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쿠팡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키운다… 호주 기업에 투자

미세조류 대량생산 기술 간 시너지
바이오 소재 분야 포트폴리오 확대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소재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ESG 경영 강화에 속도를 낸다.

CJ제일제당은 호주 바이오텍 기업 프로벡터스알지(Provectus Algae, 이하 프로벡터스)에 투자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양사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프로벡터스는 광합성 미세조류 기반의 바이오 소재 연구·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호주 스타트업이다. 2018년 설립됐으며,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해 식용 색소, 약품용

펩타이드(체내에서 호르몬, 효소, 항체 등의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미노산 중합체) 등 고부가 소재를 개발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으로도 불리는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하는데, 이 때 만들어진 당을 세포 내에 지질, 전분 등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를 활용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면서 연료 및 소재로 쓸 수 있는 유용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미세조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주로 들어가는 ‘클로렐라’ 등이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투자를 통해 프로벡터스의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 소재

제조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사업부문의 미생물 발효 기술 역량과 프로벡터스의 미세조류 대량생산 기술 간 시너지를 모색할 방침이다.

황윤일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 대표는 “프로벡터스의 혁신적 광합성 기반 탄소중립 기술과 CJ제일제당 바이오 기술 경쟁력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소재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21년 바이오사업부문 산하에 사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조직인 테크브릿지팀을 신설, 바이

오 기반의 혁신 소재 및 친환경 기술에 적극 투자하며 시너지 발굴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에는 기능성 펩타이드 소재를 개발하는 아일랜드 기업 뉴리타스(Nuritas)에 투자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비건 치즈 개발사 뉴컬처(New Culture) 및 균사체 기반의 천연색소를 개발하는 미국 기업 마이크로마(Michroma) 등에 투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벤처캐피탈 SOSV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미래 바이오텍 영역에도 투자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사업은 순항중에 있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6647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 전경 /CJ제일제당

비 14.4% 성장한 30조79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아미노산과 조미소재 등 그린 바이오가 주력인 바이오 사업 부문 매출은 4조8540억원(전년 대비 30.1% 증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원부재료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34.5% 증가한 636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식품 사업 영업이익(6238억원)보다 많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미중 갈등 커질까… 中 투자 ‘눈치싸움’

● 차이나 뉴스&리포트

정찰풍선, 러시아 무기지원 등 잡음
외국기업들, 중국사업 확장 연기 계획

올해 미중(美中) 갈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실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정찰 풍선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커진 불확실성에 투자를 늦추거나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투자 이전

을 결정했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남부에 소재한 기업들의 90%는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64%는 미중 무역 갈등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대(對)중 고율 관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기업은 60%에 달해 지난 2021년 55%, 2020년 53%보다 많아졌다.

이번 설문은 작년 12월 중국 남부 지역의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40%는 외국기업이며, 38%는 중국기업, 18%는 합작투자기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본토와 미국 기업의 비중



미국 마이클 매클 하인 외교위원장 등이 지난달 28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중국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AP·뉴시스

이 각각 43%, 28%며, 유럽과 캐나다,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기업도 포함됐다.

응답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투자위험을 이유로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올해부터 향후 3~5년 동안 중

국 재투자를 위해 쌓아놓은 자금은 미화 1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나 줄었다.

특히 올해 재투자 예산이 2억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4%에 불과해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74%는 1000만

달러 미만을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상 기업들의 26%는 이미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 이전을 결정했다. 제조업의 경우 중국 대체지로 가장 먼저 고려한 국가는 베트남이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할리 세예딘 남중국미상공회의소 소장은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일할 최적의 시점”이라며 “우크라이나전쟁은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경제를 지정학적 진영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은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KT, ‘이프랜드’ 미·유럽·동남아 본격 진출… 글로벌화 가속

각국 주요 통신사 메타버스 협약
국가별 최적화 형태 서비스 제공
유영상 사장 “사업영역 지속 확대”

SK텔레콤이 글로벌 유수의 통신사들과 함께 미주·유럽·동남아 시장으로의 메타버스 서비스 진출을 본격화한다. MWC 기간 중 미국·독일·동남아의 주요 통신사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 협력 체결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3에서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미국의 티모바일US, 동남아 11개국 사업자 악시아타, 말레이시아의 셀콤디지와 메타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49개국에 동시 출시한 데 이어, 주요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각 국가에 최적화된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번 이프랜드 글로벌 진출 협약을 위해 SK스퀘어의 박정호 부회장, SKT의 유영상 사장, 도이치텔레콤의 팀 회트게스 회장과 닥터 한스 위자아수리



유영상 SKT 사장과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이 MWC23 SKT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SKT

야, 비벡 수드 악시아타 공동 CEO, 닥터 이담 나와위(Datuk Idham Nawawi) 셀콤디지 CEO 등 ICT 관련 글로벌 주요 기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SKT는 각각 1억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글로벌 통신사와 협력함으로써 이프랜드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미국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 진행

먼저, SKT는 독일 대표 통신 사업자 도이치텔레콤, 전 세계 통신사 중 기업 가치 1위 사업자 티모바일US와 이프랜드의 독일·미국 진출에 대해 합의했다.

SKT는 27일(현지시간) MWC주 전 시장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에서 독일 대표 통신 사업자 도이치텔레콤과 미팅을 갖고 이프랜드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SK스퀘어의 박정호 부회장, SKT의 유영상 사장을 비롯해 각사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도이치텔레콤 측은 팀 회트게스 회장, 클라우드 네트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이치텔레

콤과 티모바일US 고객을 대상으로 이프랜드의 마켓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며, 각 지역에 특화된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마켓테스트는 이프랜드 독일어 버전이 출시되는 2분기를 기점으로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각 사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는 작년 5월 SKT와 도이치텔레콤의 ICT 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 논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SKT와 도이치텔레콤, 티모바일US는 이번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를 통해 유럽과 미국에서 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아 통신사업자와 메타버스 서비스 협력 추진

SKT는 28일(현지시간) MWC 현장에서 11개의 ASEAN 및 남아시아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 약 2억 가입자를 보유한 악시아타, 말레이시아 1위 사업자인 셀콤디지와 각각 메타버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미팅에는 유영상 SKT 사장과 닥터 한스 위자아수리야, 비벡 수드 악시아타 공동 CEO, 닥터 이담 나와위 셀콤디지 CEO가 참석했다.

SKT는 악시아타의 전체 자회사 대상 이프랜드 서비스 확장과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 창출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사업 기회 협력 등에 합의했다.

또한, SKT는 셀콤디지와 말레이시아 시장 내 이프랜드 이용자 규모 증대 및 신규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T는 K-콘텐츠 등 한류 문화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동남아 지역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진출함으로써, 이프랜드의 서비스 영역 확장 및 진출로 파생될 다양한 사업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유영상 SKT 사장은 “이프랜드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각국 주요 통신사들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SKT 메타버스 서비스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미래먹거리·혁신트렌드 살펴야”… 韓 ICT 거장 총출동

최태원 SK회장

첫 MWC 참가… SKT 전시장 방문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장

메타버스·XR 등 협력방안 모색

구현모 KT 대표

디지털물류솔루션 출시 계획 발표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경영진이 혁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에 총출동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텔레콤의 ‘AI(인공지능) 컴퍼니’ 혁신을 응원했고,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사장)은 XR(확장현실) 협력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연임 포기’를 선언한 구현모 KT 사장은 “디지털(DIGICO·디지털플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사장, 오른쪽)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삼성전자 IM사업부 전시 부스를 함께 참관하고 있다.

랫폼기업) KT를 계속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을 전시장 방문, 최재진에게 “SK텔레콤이 통신회사에서 AI 컴퍼니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간 키워왔던 기술을 다른 영역과 융합해 사람과 사회에 기여할 수



28일 오후(현지시간) 구현모 KT 대표가 ‘협업(Co-Creation)을 위한 시간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SK텔레콤의 AI 컴퍼니 전환을 응원했다. 최 회장의 MWC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AI 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해 고객·기술, 시공간, 산업(AIX), Core BM, ESG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AI를 모든 곳에(AI to Ever

ywhere)’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유 대표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참여해 K-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팬텀AI, 사피온, 베스핀글로벌, 몰로코, 코난테크놀로지, 스윗, 투아트 등 K-AI 얼라이언스 파트너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과 유 대표는 같은 날 삼성전자 전시관을 함께 둘러봤다. 메타버스와 XR 협력을 묻자 노사장이 “아직 (다바이스) 선행 개발 중이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발표하겠다”고 말하자 유 대표는 “다음 XR 기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SKT의 메타버스도 잘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SKT의 ‘K-AI 얼라이언스’에 삼성전자가 참가하는 방향의 AI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유 대표는 “당연히 같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 전략을 전 세계에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과 협력해 오는 9월 현지 운송 최적화 솔루션 출시 계획도 밝혔다.

구 대표는 ‘협업을 위한 시간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키노트 세션에 참석해 “(디지코 전략을 통해) 기업-소비자간(B2C)에서도 단순 연결 서비스를 넘어 미디어 플랫폼 등으로 시장을 확장해 2021년 기업간(B2B) 디지털 솔루션 사업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 대표는 디지털물류 솔루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 대표 통신사 싱텔과의 협력 계획도 밝혔다.

KT는 오는 9월 KT의 AI 기술과 싱텔의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정보기술(IT) 솔루션을 결합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운송 최적화 솔루션을 상용 출시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APAC) 시장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최태원 회장, 스페인 총리 면담…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

(SK·대한상의)

尹 대통령 친서 전달… 협력방안 논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최태원 회장이 첫 국가로 스페인을 방문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교섭을 적극 추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달 28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총리 궁에서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스페인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교섭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총리가 환담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번 면담현장에는 한국측은 대통령 특사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홍성과 유치사절단 위원, 성일경 삼성전자 구주총괄 부사장

이 참석했다. 스페인측은 산체스 총리와 외교 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현장에서 최태원 회장은 양국간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스페인의 지지를 요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스페인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이며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을 포함한 전략적 산업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유플러스-노키아 ‘오픈랜 테스트베드’ 공동구축

LG유플러스가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인 노키아와 상용망 환경에서 오픈랜 장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공동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회의를 갖고 오픈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현지시간 지난 28일 오후 진행된 회의에는 LG유플러스 김대희 네트워크 인프라기술 그룹장과 이상현 NW선행개발담당, 노키아 마크 애킨슨 무선장비개발총괄 등이 참석했다.

양사가 협력해 국내에 구축할 ‘오픈

랜 테스트베드’는 오픈랜 국제 표준 규격에 기반한 O-DU(분산장치)와 O-RU(안테나) 장비를 연동해 망을 구성하고 상용 가입자를 수용하는 등 5G 오픈랜을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오픈랜 테스트베드에는 국내 장비 제조사인 삼지전자가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비 간 연동 테스트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노키아는 O-DU 개발 및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고, 삼지전자는 O-RU를 개발한다. 개발된 결과물은 LG유플러스 상용망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與 前代’ 유세·여론전… 막바지 표심 공략으로 지지층 영끌

김기현, 전통적 보수 기반 경북 방문
안철수, 포항·창원 찾아 지지 호소
천하람·황교안, 인터뷰·기자회견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일, 주요 당권 주자들은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당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을 순회하며 막판 유세에 집중했다. 천하람·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같은 날 언론 인터뷰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전에 나섰다.

김기현 후보는 1일 경북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104회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당원과 만남을 이어갔다.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은 김 후보는 영주·상주에서 당원들과 만남도 가졌다. 국민의힘 전통적 보수 지지 기반인 경북에서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연이은 ‘울산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공세에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지지층 이탈을 막아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승



김기현(왼쪽부터),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세차익 의혹이 나온 토지 원소유주 차명 부동산 관련 소송 담당 변호사로 활동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토지 원소유주) A씨가 대량으로 토지를 샀는지 알 수 있는 게 없고, 그분 경제 관계를 검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저는 그분 땅을 산 것밖에 없다. (A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는) 가짜뉴스를 마구 퍼 나르는 사람들은 반성하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 간 연대 행보에 ‘공갈 연대’라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훌륭한 선수는 남을 뒤에서 꼬집어 당기지 않는다. 자신의 실력으로 경주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3일) 수도권 연설에서는 우리 당이 하나로 통합돼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는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이 과연 진심으로 이기기를 바라서 연대를 했는가.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연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 후보가) 계속 팔고 있다”며 “일종의 공갈 연대라는 말도 쓴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당원과 만남을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결선투표 없는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별 당원과 직접 만나 마지막까지 지지 호소에 나선 것이다.

포항 책임당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안 후보는 “(김 후보는) 가수 또는 운동선수과 문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연대 지지 명단이 엉터리인 것도 밝혀졌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럴까

생각한다”며 재차 김 후보의 연대 행보를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뽑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내년에 수도권에서 한 사람의 후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당 대표 감이 누구인지 자명하다”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천하람 후보도 수도권 합동 연설회를 하루 앞둔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천하람과 김기현의 결선을 200% 확신한다. 안 후보가 제게 레드카펫을 깔아줄 것”이라며 자신이 당 대표 경선 결선투표까지 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지금 제게 부족한 건 어찌 보면 대선주자급 인지도와 중량감인데 이걸 제가 안 후보를 꺾는 순간 다 해결된다”고 전망했다.

황교안 후보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결선에서 판을 뒤집는 전략은) 결국 당심”이라며 “당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기대기 정치를 하는 당 대표를 뽑을 건가, 냉철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李 사법리스크 그림자에 ‘쌍특검 추진’ 촉각

체포동의안 내부 이탈표 최소 31표
쌍특검법, 非이재명계 지분 커져

가까스로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의 충격파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과, 이른바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내부 이탈표가 최소 31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면서 비(非)이재명계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드러났다.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이 대표에게 비이재명계가 쌍특검안 처리까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대정부투쟁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일단, 민주당은 쌍특검에 국민의힘

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회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국회의원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회동을 갖고 쌍특검 추진에 대한 서로의 이견을 확인했다. 이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 도입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특검 관련)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는 50억 클럽 자체로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원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같은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하려 얼마나 노력을 했다. 기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특검하자는 것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몰타기다. 집요한 스토킹으로 흠짓내기는 것”이라며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수사가 부족하면 그런 요구가 커질 것이라 본다. 그때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쌍특검 추진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쌍특검 추진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을 다해 기린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온 국민이 들었던 촛불도 3·1운동의 연장선이었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 계승해 자유·평화·번영 미래 만들자”

尹,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복합 위협을 비롯한 엄중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칙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



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여야 “순국선열 희생·헌신 기억” 한목소리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다름은 3·1절에도 멈추지 않았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께도 경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3·1운동의 정신은 우리 헌법 정신 근간이 됐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숭고히 계승해 나가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조국의 독립을 되찾고자 했던 순국선열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온 마음

샘플하우스 오픈

제주도 최고급 모던 하우스 - 안트레힐

사명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드라마 '우리들에 블루스' 촬영장 인근



| 문의방법 |

- 문자를 주시면 실 동영상, 사진진과 특징점을 보내드립니다.
- 현장방문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보내 주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10-6230-1828

함께 갈등없이 행복하게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 건축주 올림

가격

17억~20억

대지 약 190평

건평 약 77평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68번지 안트레힐

저축銀 대출액 한달새 1조 감소… 고금리에 수익성 빨간불

79개 저축은행 대출 총액 116조
고금리에 중저신용자 문턱 못넘어
고신용차주 중심 마케팅 강화
디지털 전환 등 통해 비용절감도

저축은행의 주 수입원인 신용대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확장보다는 유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의 대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79곳의 대출 총액은 116조4187억원이었다. 이후 11월 115조2238억원, 12월 115조283억원으로 감소했다. 한 달 사이 1조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업계에선 주 수입원인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기준금리가 인상돼 기존에 저축은행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량이 감소하면서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대출을 찾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연 5~6%에 달하는 고금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통상 연 10% 이상 수준의 금리를 가산해야 하는 중저신용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저축은행은 고신용 차주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고신용 차주 대상

대출량을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은 감소하지만,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용절감을 통해 순이익 감소세만은 피하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이 디지털 전환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비용절감의 일환이다. 창구 업무에 투입하는 인건비 줄이기는 물론 예금 및 대출 업무 시 발생하는 종이, 시간 등을 축소해 사업 유지비를 아

끼려하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는 물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을 피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량이 소폭 감소하면서 유지만 잘하자는 의견이 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저축은행 업권은 기준금리가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연 20%)에 가로막혀 중저신용자 대출이 어려워졌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현행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고객인 중저신용자 대출에도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도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대출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덩달아 PF대출 또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일부 상가와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탓에 PF대출은 금융업권의 ‘부실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PF의 비

중이 전체 대출량의 10~12% 수준에 그쳐 PF 부실에 의한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달부터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도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대출 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 예상이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가계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은 일제히 악화했다.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업계 특성상 규제를 완화해도 쉽게 대출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출총량제 완화는 리테일 위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에는 분명 희소식이지만 가계대출량을 늘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선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BNK 인사 마무리… 부산은행장에 방성빈

경남은행장에 예경탁 부행장보
BNK캐피탈 대표에 김성주 내정
4월 1일부터 공식적 임기 시작

차기 BNK부산은행장에 방성빈 BNK금융지주 전 전무가 내정됐다. 경남은행장에는 예경탁 부행장보가, BNK캐피탈 대표는 김성주 현 BNK신용정보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1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방성빈 부산은행장 내정자는 지난 1월 30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후 서류심사 평가, 프리젠테이션 평가 및 면접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문성과 경영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방 내정자 1965년생이다. 브니엘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은행 연수원 교수, 경영기획부장, 경영전략그룹장(부행장보), 그룹글로벌부문장(전무) 등을 역임했다.

방 내정자는 내달 중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이어 4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

BNK경남은행의 제15대 은행장에는 예경탁 부행장보가 확정됐다.

예 차기 행장은 프리젠테이션, 심층면접 등을 거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



방성빈 차기 부산은행장

예경탁 차기 경남은행장

김성주 차기 BNK캐피탈 대표

추위)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주주총회를 거쳐 내달 선임된다.

최종 후보자 2인 중 한 명인 최홍영 은행장은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등 양호한 경영성과에 불구하고 조직의 미래와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를 결정했다.

예 차기 행장은 1966년생이다. 밀양고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창원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BNK경남은행에는 1992년 입행해 울하지점장, 인사부장, 카드사업부장, 동부영업본부장등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여신운영그룹장 겸 여신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예경탁 부행장보는 오는 4월 1일 제15대 은행장으로서 공식적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추위는 “예경탁 부행장보는 BNK

경남은행 주요 부문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특히 여신운영그룹장을 맡으며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BNK캐피탈 차기 대표에는 김성주 현 BNK신용정보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거창고등학교, 동아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부산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부산은행 IB사업본부장, 여신영업본부장등을 거친 뒤 BNK금융지주 그룹리스크부문 전무, 그룹글로벌부문 부사장 등을 역임한 뒤 BNK신용정보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내달 자회사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김정선 기자

작년 해외 카드 사용액 19% 늘었다

입국제한 완화에 해외여행 증가
내국인 출국자수 전년비 5배 ↑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사용액이 18.9%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2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직불카드의 해외사용금액은 145억4000만달러로 1년전과 비교해 18.9%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쇼핑이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코로나 관련 입국제한 조치가 완화됐다”면서 “내국인 출국자수가 증가하며 해외 사용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수는 655만명으로 1년전 122만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사용카드장수는 5128만8000장으로 10.4% 늘었고, 장당 카드 사용금액은 283억달러로 7.7%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로 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년전과 비교해 32.6% 증가한 반면 체크카드는 8.6%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취임 100일을 맞은 Sh수협은행 강신숙 은행장(오른쪽)이 워크숍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h수협은행

‘취임 100일’ 강신숙, 소통 워크숍 진행

〈Sh수협은행장〉

전국 영업점 책임자 170여명 초청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취임100일을 맞아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Sh수협은행은 강 행장을 필두로 전국 영업점 책임자들과 소통하는 ‘2023년 사업목표 달성 영업점 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양평 불룸비스타에서 진행했다. 영업점 책임자 170여명을 초청해 2023년 사업목표를 공유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강 행장은 지난 100일간 ▲금융본부(19개) 체계 개편 ▲투자금융(IB)본부·리스크관리그룹 격상 ▲은행장 직속 애자일 조직 ‘미래 혁신추진실’ 신설 ▲비이자수익창출기반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강 행장은 워크숍에서 ‘네 바퀴론’을 강조했다. 네 바퀴론은 자동차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바퀴가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하듯 경영에서도 CEO,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선 기자

기업은행, 취약계층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면제

은행권 최초, 이달 말부터 시행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타행(자동)이체 ▲창구 타행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는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박정호 “SK실더스, EQT와 글로벌 종합 보안회사로 육성”

〈SK스퀘어 부회장〉

SK스퀘어 ‘MWC2023 간담회’

발렌베리가에 실더스 지분 매각
EQT, ‘SK 실더스’ 최대주주로

SK스퀘어, 8646억 재원 확보
무인매장 등 신규사업에 활용

SK스퀘어가 스웨덴 발렌베리가의 글로벌 투자회사 EQT 산하 EQT인프라스트럭처(EQT)와 SK실더스를 공동 경영에 나선다.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023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8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를 갖고 “EQT와 SK실더를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종합 보안 회사로 키운다는 미래 지향점을 가지고 공동 경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QT는 SK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와 맥쿼리자산운용 컨소시엄의 지분 전체를 약 2조원에 인수하고 추가로 신주를 취득해 SK실더스의 최대 주주(68%)가 된다.

SK스퀘어는 기존 SK실더스 지분(63.1%) 중 31.1%를 EQT에 넘기며 8646억원의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했다. 남은 지분은 32%(지분가치 약 1조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EQT에 SK실더스 지분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SK스퀘어는 2대 주주로서 EQT와 SK실더스를 공동경영하게 된다.

/SK스퀘어

원)다. SK스퀘어는 2대 주주로서 SK실더스를 공동 경영한다.

박 부회장은 “이번 투자유치로 SK스퀘어는 최근 저평가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빅딜(Big Deal)’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며 “유연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전략을 실행한다는 SK스퀘어의 비전이 출범 1년여 만에 큰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SK실더스는 기업가치 5조원 이상(지분가치와 부채

포함)을 인정받았다. 이는 SK실더스 인수 당시 3조원대의 기업가치를 약 2배로 키워낸 것으로 2021년 11월 투자 전문회사로 출범한 SK스퀘어의 최대 투자성과다.

SK스퀘어는 EQT와 협업을 올해 3분기 내를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와 각종 정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대 주주로 밀려남에도 공동 경영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EQT 측 제안이다. 박 부회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쟁

스타일이 있겠지만, SK브랜드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같이하자고 해서 공동 경영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승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동 경영 방식은 물론 이사회 구성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스퀘어 지분을 인수한 EQT는 1994년 현재 EQT 회장인 콘니 온슨과 스웨덴의 저명한 발렌베리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인베스터AB’에 의해 설립됐다. 인베스터AB가 지분을 소유한 주요 기업들은 EQT를 비롯해 ABB, 아스트라제네카, 아트라스코프, 일렉트로룩스, 에릭슨, 사브(SAAB) 등이 있다.

EQT는 전 세계에서 최근 5년간 자금 모집액이 세 번째로 큰 사모펀드 운용사(PEF)이며, 총운용자산(AUM)이 약 156조원(1130억 유로)에 달한다. EQT는 약 200개의 포트폴리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SK스퀘어는 먼저 2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무인 매장, AI 기반 보안 서비스 등 SK실더스 신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SK실더스로서는 신주 발행을 통해 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꾀한

다는 포부다.

또한 EQT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보안기업들과 시너지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사이버·융합보안 구축형 사업모델 확대 ▲물리보안 사업모델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QT는 북미, 유럽지역에서 보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큐리타스(Securitas), 안티시맥스(Anticimex), CYE, 오픈 시스템(Open Systems)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SK실더스는 현재 미국, 중국, 헝가리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과 일본에서는 현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관제 플랫폼을 수출하거나 보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해외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과 전략적 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은 “SK스퀘어 출범 후 첫 투자 풀사이클 성과를 시작으로 주주가치를 본격 제고하겠다”며 “국내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LG엔솔-혼다, 북미 전기차 공략 ‘첫 삽’

배터리 생산 합작공장 기공식

연간 생산능력 40GWh 규모
44억불 투자, 2200개 고용창출
생산 배터리, 혼다에 독점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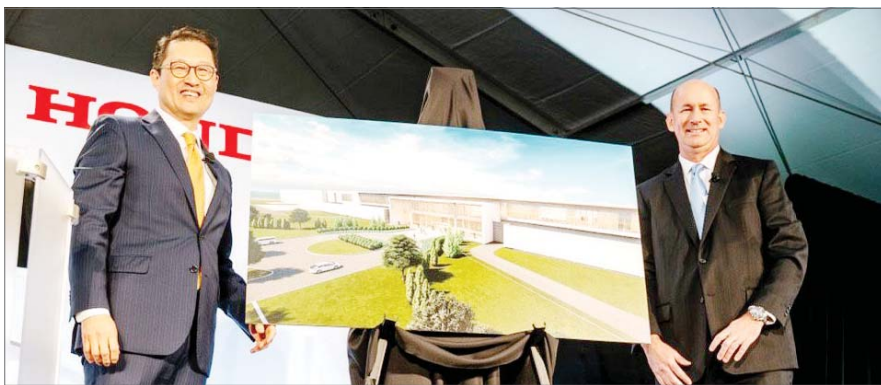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합종연횡을 통해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 두 회사의 합작법인은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완성차 업체의 첫 전략적 협력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신규 공장을 통해 생산된 배터리는 북미 혼다 공장에 독점적으로 공급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L-H Battery Company, Inc(가칭)가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기공식을 28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파이어트 카운티 제퍼슨빌 인근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 혼다 자동차 마베 토시히로 사장 및 합작법인 CEO(최고경영자) 겸 LG에너지솔루션 북미지역총괄 이혁재 부사장, COO(최고운영책임자) 릭 리글(Rick Riggall)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오하이오 주지사, 존 허스테드 부지사 등 주정부 인사들과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신규 공장은 약 18만 6000㎡ 규모로 건설되며, 2024년 말 완공, 20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투자금액 44억 달러, 연간 생산능력 40GWh 규모이며 2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합작법인 CEO 이혁재 부사장은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를 써온 두 기업을 대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차별화된



LG에너지솔루션-혼다 합작 CEO 이혁재 부사장과 COO 릭 리글이 합작공장 조감도를 공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투자 능력과 함께 검증된 글로벌 양산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최고의 배터리 회사이며, 혼다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만큼 두 기업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작법인의 COO Rick Riggall은 “혼다와 LG에너지솔루션, 오하이오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번 합작공장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는 지난해 8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전기차 생산 확대 및 배터리 적시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을 함께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공장부지 최종 발표, 1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올해 1월에는 법인 설립을 마쳤다. 양사는 이번 기공식과 함께 합작공장을 본격적으로 건설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

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명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는 LG그룹 역사상 혼다와 함께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사업이며, 혼다의 1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사용될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두 회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합작공장을 통해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달성하고 탁월한 품질로 선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적극적인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올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생산공장의 생산능력을 300GWh까지 높이고, ▲제품 경쟁력 차별화 ▲스마트팩토리 구현 ▲SCM 체계 구축 ▲미래 준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설투자를 지난해 대비 50%이상 늘리고, 연간 매출도 25~30%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갤럭시’ 인기에… 삼성 로고 日서 부활

갤럭시모바일 재팬 → 삼성 재팬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다시 ‘삼성’으로 돌아왔다. 삼성전자는 일본 시장에서 유일하게 ‘삼성’로고 대신 ‘갤럭시’ 로고를 사용해왔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일본법인은 이날 현지 기존 온라인 웹사이트였던 ‘갤럭시모바일 재팬’을 ‘삼성 재팬’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알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갤럭시S6 출시 때부터 모바일 제품에 ‘삼성’을 지우고 ‘갤럭시’ 브랜드를 표기했다. 일본은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유독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간 ‘갤럭시’로 승부를 보던 삼성은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로 일본 시장에서의 선호도를 올렸고, 이에 힘입어 명칭 변경에



지난해 일본 도쿄 미드타운 캐노피 스퀘어(Midtown Canopy Square)에서 진행 된 ‘갤럭시 X BTS’ 특별 체험 이벤트.

/삼성전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일본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갤럭시S23 시리즈에도 ‘삼성’이 각인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4분기 일본에서 점유율 13.5%로 애플(56.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13년 1·4분기 14.1%를 찍은 후 10년 만에 분기 기준 최고 수준이다.

/허정운 기자

한화테크윈, ‘한화비전’으로 사명 변경

글로벌 비전 솔루션 기업 도약
빅데이터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한화테크윈이 ‘한화비전’으로 사명을 바꾸고 글로벌 비전 솔루션 기업으로 나선다.

글로벌 영상 보안 전문 기업인 한화테크윈은 1일 새로운 사명 한화비전을 공개했다. 한화비전은 영상 보안 솔루션에서 더 나아가 차세대 비전 솔루션을 선도함으로써 고객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안순홍 한화비전 대표는 “우리의 핵심 경쟁력인 비전 기술에 혁신을 더해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보안 및 사후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에서 확장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예방,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액션 솔루션 연계 및 비즈니스 운영전략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비전은 이후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별 상황에 맞춰 법인명 이하 제품, 솔루션 등에 대한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KT 차기 CEO 후보’ 전현직 4명 압축… 디지코 글로벌 확장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

정치권 출신, 장·차관 등 탈락
원칙 지켜 ‘낙하산 논란’ 차단

“실질성과 창출·DX시장 리딩 할
매니지먼트 리더십중심 후보 검증”

KT 지배구조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차기 대표이사 면접대상 후보자를 전·현직 KT사장들로 꾸렸다.

구현모 현 대표가 여권의 압박에 물러나면서 정치권 내정설이 유력화됐지만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KT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치적 외풍(外風)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낙하산’ 논란을 차단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KT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선정한 차기 대표이사 후보 심사대상자(가나다순)는 박윤영 전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Enterprise부문장·부사장



윤경림
Transformation부문장·사장



임현문
전 Mass총괄·사장

장),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 임현문 전 KT Mass총괄(사장) 등 총 4인이다. 사외인사 2명, 사내인사 2명이 각각 선정된 것이다.

그동안 유력후보로 거론돼 왔던 정치권 출신이나 장관·차관을 지낸 후보자는 대표 후보자에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KT 내부는 물론 통신업계에서도 크게 우려돼 왔던 ‘낙하산 인사’들은 모두 탈락한 것이다.

이번 KT 대표 후보자 선정은 KT가 디지털플랫폼 기업으로 제대로 된 역할

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빠진 것이다.

KT 인선자문단측은 “급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환경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T 리더십’과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DX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리더십’을 중심으로 사내외 후보자들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인선자문단 관계자는 또 “사내 후보

자의 경우, 1차 압축한 후보들 중 외부 전문가의 리더십 진단과 그동안 경영 성과를 고려해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T 이사회는 이번 대표이사 후보 면접 심사 기준으로 ▲DX 역량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변화와 혁신 추구 ▲기업가치 제고 ▲ESG 경영 강화 등을 기준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4명의 공통 분모는 서울대 출신으로 박윤영·윤경림·신수정 등 3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또 임현문 전 사장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박윤영 전 사장(62) 및 임현문 전 사장(64)은 이번이 KT 대표로 2번째로 도전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3년 전 KT 대표 경선에서 구현모 대표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최종에서 탈락했다.

박 전 KT 사장은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그는 최근까지 KT에

몸을 담았으며, KT 내에서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담당했다. 빠른 추진력으로 성과를 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전 사장은 KT에서 소비자 및 마케팅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KTF 마케팅연구실장, 홈고객전략본부장을 지냈다. 2010년 퇴직 후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나 2014년 KT로 복귀해 KT 매스총괄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부 인사 중 유력후보로 꼽히는 윤경림 사장(60)은 통신 3사를 모두 경험한 ‘통신 전문가’로 2019년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했다 2021년 다시 KT로 복귀해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를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KT와 현대자동차의 7500억원대 지분 맞교환, CJ그룹과 콘텐츠 동맹을 주도해 핵심적인 성과를 수행했다.

신수정 부사장(59)은 SK 출신으로, 2014년 KT로 이동한 후 정보보안단 및 IT 기획실장을 지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김동선의 한화갤러리아 ‘독자 경영’ 나서

한화솔루션 합병 2년만에 분리
유통부문 사업승계 본격화 판단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분리해 ‘독자 경영’에 나선다.

한화솔루션에 합병된 지 2년 만에 다시 분리되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갤러리아 부문 전략본부장(사진)의 경영 능력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을 두고 김 본부장의 유통 부문 사업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화갤러리아는 한화그룹의 지주사인 (주)한



인적 분할 됐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갤러리아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재상장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동선 본부장이 이끄는 갤러리아 부문의 프리미엄 리테일 등 유통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화의자회사로 변경된다. 갤러리아가 2021년 4월 한화솔루션에 흡수·합병돼 사업부문으로 있는 지 2년 만에 다시 신설 법인으로

하반기 미국 파이버가이즈 버거를 국내에 들여오는 등 유통 부문에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갤러리아부문 신사업전략실장에서 기존 신사업전략실과 함께 기획과 인사 등의 업무를 통합한 전략본부장을 맡으며 경영 전반 참여로 역할을 확대했다. 올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에도 처음으로 참석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은 매출 5327억원, 영업이익 373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3.5%, 29.1% 실적 개선을 이뤘다.

/양성운 기자 ysw@



(왼쪽부터) 티론 최백준 대표, 한글과컴퓨터 진성준 본부장, kt cloud 윤동식 대표, 티맥스오에스 심훈 상무, 안랩 강석균 대표, 씨유박스 남운성 대표.

/kt cloud

KT클라우드, 공공 DaaS 플랫폼 도입 박차

틸론·안랩 등 5곳과 MOU 체결

kt cloud는 티론, 한글과컴퓨터, 티맥스오에스, 안랩, 씨유박스와 ‘국산DaaS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kt cloud 윤동식 대표, 티론 최백준 대표, 한글과컴퓨터 진성식 본부장, 티맥스오에스 심훈 상무, 안랩 강석균 대표, 씨유박스 남운성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aaS(Desktop as a Service)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톱(VDI)과 앱

을 통해 시간, 장소, 단말 제약없이 업무가 가능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협약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스마트 업무환경 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VDI 솔루션, 개방형 운영체제(OS), 엔드포인트(Endpoint) 보안 솔루션, 사용자 인증 솔루션이 통합된 공공DaaS 플랫폼을 위해 협력한다. 보안성, 안정성, 편의성이 강화된 E2E(End to end) 공공DaaS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DaaS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윤정 기자

MS, 윈도우11 검색엔진에 챗봇 ‘빙’ 탑재

아이폰 사용자 위한 폰링크도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생성 AI(인공지능) 챗봇 ‘빙’ (Bing)을 PC 운영체제에도 탑재하며 빙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챗봇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MS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윈도우 11의 주요 업데이트 모습을 공개하고 작업표시줄 검색상자에 새로운 버전의 빙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폰링크도 새롭게 공개했다. MS는 이번 주요 업데이트는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윈도우와 아이폰 사용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로운 버전의 ‘빙’의 챗봇 버튼이 눈에 띈다.

파노스 파네이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제품 책임자는 “윈도우 PC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일상에 가까워졌으며, 이는 AI의 도입이 이끄는 새로운 컴퓨팅 흐름에 따라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AI 시대에 맞춰 발표되는 윈도우11의 주요 업데이트는 사람들이 PC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재창조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윈도우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만으로 빙이 탑재된 검색상자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사용자가 빙을 이용하기 위해선 대기 등록을 한 뒤 MS의 승인을 얻으면 프리뷰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

MS 측은 챗봇 ‘빙’ 윈도우 탑재 소식을 알리며 “사용자들이 검색상자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업데이트 버전 사용방법에 따라해봤다.

윈도 하단 시작 버튼 옆의 찾기 상자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와 함께 챗

봇 버튼이 나왔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챗봇 ‘빙’을 체험할 수 있는 엣지 브라우저 창으로 연결됐다. 전 버전과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빙’ 버튼이 눈에 띄긴했다.

다만 이번 업데이트로 검색엔진에 탑재된 ‘빙’ 버튼은 모든 윈도우에 배치되는 건 아니다. 2021년 배포한 윈도우 11에만 배치될 예정이다.

MS는 빙 탑재를 필두로 신규이용자 확보, 챗봇 시장 선점, 윈도11 보급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한다.

또 그간 아이폰 사용자들의 윈도우 활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을 고려해 ISO용 폰링크를 출시했다. 이제 아이폰 사용자는 윈도우11 PC로 작업을 하는 동안 중요한 전화나 문자를 놓칠 일이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가 아이폰 사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윈도우 포토 앱을 아이클라우드와 통합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틱톡 파트너 숏츠, 팔로워 1억명 돌파

출시 1년여 만에 연매출 30억 성과

숏폼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뉴 노멀로 각광받고 있다. 숏폼은 짧은 동영상 뜻을 뜻하는 말로 그 위력이 뛰어나 ‘15초의 마법’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가운데 틱톡 공식 파트너 ‘숏츠’가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바탕으로 굵직한 성과들을 달성하며 더욱 활발한 사업 진행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숏폼 토털 솔루션 기업 숏츠는 참신한

캠페인 기획과 1억 350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 영향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출시 1년 여 만에 연매출 약 30억원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숏츠가 보유한 팔로워 수는 틱톡 1억 1700만, 유튜브 1800만으로 지난해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분야에서 단숨에 메이저 그룹에 진입했다.

숏츠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스포티파이 등 국내외의 유수의 파트너 기업들을 위한 개성있는 숏츠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버스 속
소소한 재미
버스족(族)
BUS JÖ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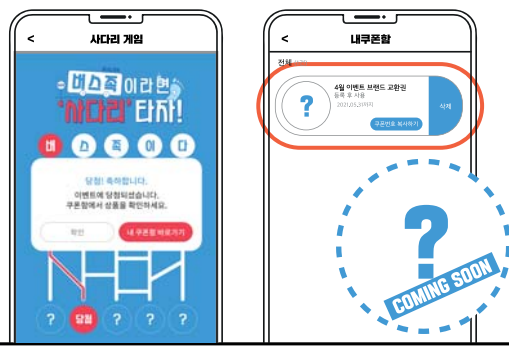
- 1 서울 시내 버스를 타고
YapTV 속 콘텐츠를 본다.



- 2 영상 속 QR코드를 촬영한다.
※ 버스족 앱의 Q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 3 이벤트 참여하면
[다양한 브랜드] 선물이 쏩!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하이브, SM 공개매수 사실상 실패… 경영권 향방 ‘안갯속’

카카오, 에스엠 경영권 분쟁 입장문
하이브 “절차 종료후 결과 발표”
에스엠 주식거래 금감원 조사 요청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경영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데다, 하이브가 에스엠 지분 공개매수 및 경영권 확보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에스엠은 전날보다 7300원(6.07%) 오른 12만76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스엠의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넘어서며,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통상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을 넘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공개매수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진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개매수의 공식적인 종료일은 1일이고, 대금 지급을 포함한 실제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은 6일”이라며 “전체 절차가 종료된 이후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건물 전경.

이어 하이브는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에 IBK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주문된 에스엠 주식 매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에스엠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 날(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에스엠 발행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대량 매수주문이 몰렸다. 해당 주문이 카카오 혹은 카카오와 연대하는 기관의 대규모 물량으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라는 게 하이브 측의 추측이다.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

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측도 에스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전략을 수정하는 등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양측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27일 김성수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에스엠과 파트너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3사(SM·카카오·카카오엔터)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카카오 판교 아지트 로비 전경.

/카카오

수 없다”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에스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이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대상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쏠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에 나온 양측 주장과 추가로 접수된 서면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에스엠이 발행하는

유상증자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에 2172억여원을 투입해 에스엠 지분 9.05%를 취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에 뛰어들어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카카오의 계획이 꼬이게 됐다.

만일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카카오의 에스엠 지분 확보는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카카오도 하이브처럼 공개매수 등을 통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달러 강세에도 개미들, 하락에 베팅 전다

‘달러선물인버스2X’ 93억 순매수
美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 커져

개인투자자들은 달러 상승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팔고 달러 하락에 수익을 내는 ETF를 사들이고 있다. 이는 최근 상승한 환율 흐름이 다시 꺾일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환율 하락이 예상될 때 수익을 내는 ‘KODEX 달러선물인버스2X’를 93억원가량 사들였다. 같은 기간 ‘KOSF 달러선물인버스2X’와 ‘TIGER 달러선물인버스2X’를 각각 1억 3621만원, 5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 상승의 2배 수익을 추종하는 ETF인 ‘KODEX 달러선물레버리지’를 28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KOSF 달러선물레버리지’와 ‘TIGER 달러선물레버리지’를 이 기간 동안 각각 16억원, 8억원어치를 팔아치웠

다.

최근 환율이 13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32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물가지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 기조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 우려가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로 재차 현실화하면서 달러화역시 강세폭이 확대됐다”며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장기화할 수 있음에 달러화 지수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달러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자 달러 상승 시 수익을 얻는 ETF 상품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KODEX 달러선물레버리지는 지난달 15.70% 상승했다. 같은 기간 KOSF 달러선물레버리지와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도 각각 15.83%, 15.45% 올랐다.

이에 비해 KODEX 달러선물인버스2X는 13.70% 하락했으며, KOSF 달러선물인버스2X는 13.78% 떨어졌다. TIGER 달러선물인버스2X도 13.60% 내렸다.

전문가들은 긴축 우려로 인해 당분간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간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연구원은 “2년 국채금리가 75bp(1bp=0.01%포인트) 추가금리인상(25bp씩 금리인상 가정)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달러화 추가 강세폭은 시나리오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며 “향후 발표되는 지표로 75bp 이상의 인상 시나리오가 탄력을 받는다면 달러화의 추가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상반기 중 미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폭이 최대 75bp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달러화의 추가 강세폭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매매가 절반 수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1.2%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 분석
강남구 전세가율 42.5%… 가장 낮아

최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로, 지난해 11월(53.9%)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08년 5월(39.8%)을 시작으로 2009년 9월(39.7%)까지 30% 후반대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가율은 2011년 10월(50.8%) 50%선 위로 반등했다. 2015년 7월(70.3%)부터 2017년

말까지 70%대까지 상승했으나 점차 하락해 50%선을 밀도는 곳이 있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였다. 강남구는 42.5%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용산구(43.2%), 송파구(45.3%), 서초구(45.9%) 순으로 전세가율이 모두 절반에 못 미쳤다. 비규제 지역 중 유일하게 전세가율이 50% 아래를 보인 곳은 양천구였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59.1%)로 조사됐다. 성북구·강북구(57.3%), 동대문구·종로구(57.1%), 금천구(56.9%), 은평구(56.2%) 등 전세가율이 60%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최

근 매매가격에 비해 전셋값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남 지역에선 전세보증금이 수억원씩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은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6억3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달 전셋값(7억3500만원) 대비 1억5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리체’는 지난달 전용면적 106㎡의 전셋값이 13억5000만원으로 손바뀜되면서 1개월 만에 전셋값(15억원)이 1억5000만원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의 경우 지난 1월 전용면적 84㎡가 9억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3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달 전셋값인 8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13.98%(1억3000만원)에 달한다.

전세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중 금리가 여전히 높고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시세 반등으로 가기에 수요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김기문 “中企·협동조합 정책지원 메카로 새롭게 도약”

중기중앙회장 만장일치 추대

단독 출마해 364명 전원 찬성
제27대 회장 27년 2월까지 임기
부회장 5명·이사 19명 새로 선출
부서 ‘실’ 통합 등 조직체계 개편

김기문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년 간 중기중앙회를 더 이끌게 됐다.

김기문 회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제23·24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제26대에 이어 4번째로 중기중앙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제61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 회장을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27대 회장에 추대했다.

김 회장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중기중앙회를 진두지휘한다.

김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번 연임은 회원분들께서 저의 지난 임기 4년과 과거 8년의 노력을 믿어주신 결과라 생각한다”며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



김기문 제27대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열린 중기중앙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추대받은 후 노상철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법 개정 등 보완입법 추진을 통한 납품 단가 연동제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수준 완화 및 50인미만 기업 유예기간 3년 연장 등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홈앤쇼핑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규제전담팀 신설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 상시화 ▲모든 기초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목표 구매율 설정을 통해 지역제품 판로개척 지원 ▲중소유통업 통합전산망 구축 및 정착, 풀필먼트 전국 확산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 1000억원 조성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100억원) 및 지자체(100억원) 직접지원 예산 마련 ▲적정이윤 보장 및 정당한 가격경쟁을 위한 낙찰하한율 개선 등 공공조달 시장 제값받기 제도 개선 ▲현재 13개 지역본부별 18개(경기북부 포함)로 지역거점 확대 ▲‘목돈마련-대출-보증-보험공제’로 이어지는 공제상품 라인업 강화 ▲협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 가족을 위한 복합 연수레저 시설 마련 등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는 복합 경제위기와 미래 트렌드에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중

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의 4년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88년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을 창업한 김 회장은 초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6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2천만불 수출탑 수상 및 철강산업훈장(2001년11월), 남북관계발전에 힘쓴 공로로 은탑산업훈장(2008년2월), 세계경제위기 극복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2013년2월)을 각각 수훈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4기 김기문호’가 출범하면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우선 본부 부서명칭을 ‘실’로 통일해 ‘본부-실-팀’ 체제로 개편했다.

상근부회장 직속의 준법지원실, 기획조정실내 디지털전략TF팀, 정책총괄실내 규제혁신TF를 신설했다.

또 판로정책부와 단체표준부는 ‘판로지원실(단체표준팀)’로, 국제통상부와 무역촉진부는 ‘국제통상실(무역촉진팀)’로, 인력정책실과 청년희망일자리부는 ‘인력정책실’로 각각 통폐합했다.

아울러 법무팀(준법지원실), 남북경협센터(국제통상실), 납품대금조정센터(상생협력실), 개발원운영팀(교육지원실)은 폐지하고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지역조직의 경우 경북지역본부를 새로 열고 원주공제센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1단 7본부 36실, 15팀, 14지역본부, 4공제센터, 1 해외사무소를 갖추게 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비상임 부회장 5명과 비상임 이사 19명을 새로 선출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조웅 회장, 안산비철금속유동사업협동조합손인국 이사장,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심승일 회장,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최우각 이사장,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병준 이사장이 부회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회에선 또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이 우수조합(단체)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이 중기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유공자(개인) 부문에선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권주광 이사장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폐기물 선순환 생태계 구축 추진

SK에코플랜트와 업무협약

폐기물 시장 문제점 개선
모든 단계 관리 디지털 전환

CJ대한통운이 폐기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SK에코플랜트와 손잡았다.

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폐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폐기물을 줄이려면 현재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에서 각종 물품이 모이는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종류와 양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은 배출→수집·운반→처리 순으로 이뤄지는데, 주체가 서로 달라 밸류체인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양사는 이러한 폐기물 시장의 문제점



CJ대한통운 김희준 ESG 담당(왼쪽)과 SK에코플랜트 조재연 DT 담당이 ‘폐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운반, 최종 처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SK에코플랜트의 폐기물관리 솔루션인 ‘웨이블(WAYBLE)’을 활용한다. 그동안 측정이 어려웠던 폐기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

식으로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폐기물 발생 패턴을 분석해 불필요한 신규 자원 사용과 폐기물을 감축하는 한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폐기물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재생 원료로 재생산한다.

CJ대한통운 김희준 ESG 담당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자원순환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대 물류 인프라와 SK에코플랜트의 환경 인프라를 결합해 독자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제주항공, ‘탐라는 꿈’ 125명 학생 모집

객실승무원 교육기부 확대운영

제주항공이 객실승무원의 꿈을 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제주항공은 올해부터 교육 참여 대상자를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명칭을 ‘제주항공 탐라는 꿈(탐라는 꿈)’으로 바꾸는 등 학생 대상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편해 운영한다.

제주항공은 2022년 2월부터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 9회에 걸쳐 90명의 객실 승무원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탐라는 꿈’은 5회에 걸쳐 모두 125명(회당 25명)의 학생들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한다. 객실승무원 직무에

대한 수업과 실제 객실승무원이 받는 안전교육인 심폐소생술(CPR), 현직 객실승무원과의 질의응답 등이 약 3시간에 걸쳐 제주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수료 시 교육기부 수료증도 발급해 준다.

‘탐라는 꿈’은 교육기부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되고, 교육 참여가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이뤄진다. 교육 일정 등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실제 객실승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보다 생생하고 적극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대동, 소형건설장비 공급계약 체결

현대제뉴인에 2029년까지 공급

대동이 소형 건설 장비인 스킵로더(SSL) 사업 추가 확장에 나선다.

1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대동은 현대제뉴인과 ‘소형 건설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 3월까지 SSL 2개 모

델 약 1900대를 공급한다. 이를 통한 예상 매출은 약 700억원이다.

대동은 지난해 말에도 현대건설기계(주)에 2029년까지 소형건설장비 SSL&컴팩트 트랙 로더(CTL) 제품을 3000대(약 1280억원) 이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SL과 CTL은 골재, 흙, 풀더미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소형·경량 건설 장비(CCE)다. 국내에선 소규모 공사 현장이나 농촌 지역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북미에선 전원주택이나 개인농장의 시설 관리 용도로 주로 쓰인다.

대동은 현대건설기계(주)에 이어 올해 현대제뉴인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9년까지 총 20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V2V 급속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기아가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티비유(TBY)와 2일부터 차량 간 급속 충전 기반의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선다.

기아가 개발 중인 차량 간 급속 충전 기술은 두 전기차의 충전구를 케이블로 연결해 차량 간 충·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전기차 고객은 충전을 위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남은

전력을 거래해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기아와 티비유는 지난해 11월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전기차 이브이(EV)6와 봉고 II I 이동형 충전차량을 활용해 3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과 판교에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티비유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일렉 베리(elecvery)’ 앱에서 충전 장소와 시간 등을 입력한 뒤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kWh까지 무료로 충전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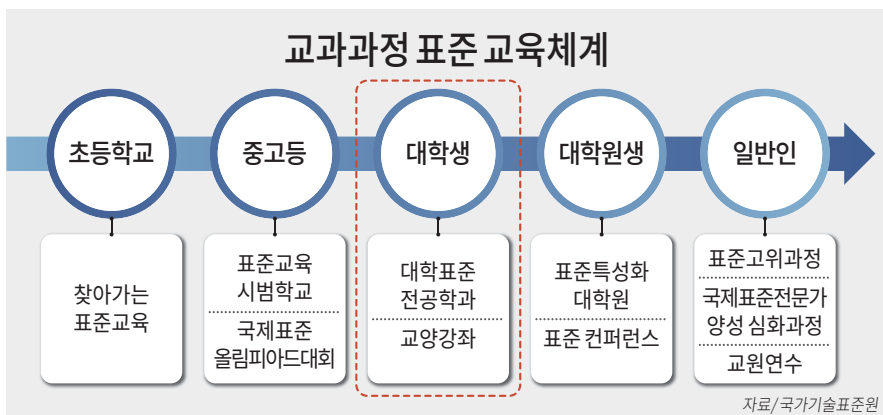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ysw@

국내 최초 개설된 고려대 ‘표준학과’, 첫 신입생 맞아

정시모집에 8대 1 경쟁률 기록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 인재 양성 위한 체계적 교육”
3개 대학 ‘표준 특성화 대학원’ 운영

국내 대학 학부에 처음으로 표준 전
공이 개설돼 첫 신입생이 입학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고려대학교는 1일 국내 최초로 신설된
고려대 세종캠퍼스 ‘표준·지식학과’에
2023년도 신입생 20명이 입학했다고 밝
혔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표준·지식학
과’는 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표원은 “표준 인재 양상을 위해 체



계적인 대학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년부터 고려대에 교과목 개발, 교재
발굴 등 교과 과정 개발을 지원해 표준
전공 학사과정 개설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표준과 지식 관련 기초교
육에서부터 시험·인증 실무과정, 기술
창업 교육까지 표준·지식 분야 종합 인

재를 양성하는게 목표다.

표준을 직접 작성해 보고, 시험·인증
에 적용해 보는 한편, 나아가 국제 표준
화 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 역량까지 교
육할 예정이다. 또 지식재산에 대한 관
리·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
로 기술창업 교육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학사과정 외에도 초·중·고
생부터 일반인까지 전체 교과 과정에
대한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연간 200여 개의 초·
중·고를 직접 방문하거나 디지털 교재
보급 등을 통해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는 고려대, 부산대, 중앙

대 등 3개 대학에 ‘표준 특성화 대학원’
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을 지원 중이다.

또 기업 활동에 표준 활용 및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중앙대예
서 기업 임원,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표준 고위과정’을 운영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국가표준의 미래를 이끌
표준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전
문인력이 지속 보급될 수 있도록 다양
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조·건설업서 일하면 1200만원 목돈 뚝딱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5~49인 사업장 취업 2만명 지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
일채움공제’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
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근
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
속 시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
부 400만원 등 공동 적립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적립금
이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정부 지원
금이 축소돼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됐
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7만명보다 줄어
든 2만명이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
만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제한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불일치(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부담을 합리화해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뉴시스

함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 대상
타 부처의 자산 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
움공제 간 동시 가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신규청년도약계
좌’,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을 원하
는 청년과 기업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
용센터를 통해 가입 요건 확인 후 신청
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업장 폐업 등으
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되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 폐업으로 인해 청년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기업이 낸 금액을 받
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
급하도록 했다.

이현욱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
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소상공인·상점·온라인 ‘동네’로 뭉친다

지자체와 컨소시엄 구성해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달 24일
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판로 개척 및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네단위 유통
채널 구축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
체를 모집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동네단위 유통
채널 구축사업은 지역 내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 상품을 판매·체
험할 수 있는 동네상점 및 온라인 판매
채널을 연결해 지역 내 유통생태계 구
축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2개 지역으로 지자

체와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
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프라 등 소상공인 지원 자체역량 또
는 연계가 가능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
기관·기업·단체 등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6억원을 지원
하며 해당 지자체는 국비의 20% 이상
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산자(상품) 발
굴·상품화 지원 ▲동네상점 발굴·체험
형 공간구축 ▲지역 내외 활성화된 온
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교육·컨설팅
및 성과확산 홍보 등이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 재기 위해 고용보험료 50억 지원

중기부, 예산 늘려 2.5만명 혜택

부산 해운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성
모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험료 지원
을 받으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하던 중 경영악화로 가게를 접어야했
다. 성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한 덕에 지난해 9월부터 430만원의 실
업급여와 300만원의 직업훈련 교육비
를 지원받으며 현재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다.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
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예
산(36억3000만원)보다 38% 늘어난 것
으로 올해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들
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
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
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
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
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
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에서 모

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
인 누구나 신청만하면 고용보험료의 일
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
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받
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
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
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고용노
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
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
원사업을 1대1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
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및 재
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들
을 수집·제공해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
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진
공 누리집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
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1357)를 통
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경영 애로 집중 발굴 관련 부처 공유·해결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과감한 투자를 이끌
기 위해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본격 출범했다.

1일 중견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
부와 함께 ‘중견기업 핫라인’ 역할을 위
해 꾸린 전담반은 지난 1월 산업부가 발
표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
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일환으로 설치
한 중견기업 전용 패스트트랙이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투자활동을 막
는 신산업, 환경, 입지 등 덩어리 규제
와 경영 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정부 부
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속도
를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내 일자리 정보 ‘AI잡케어’가 찾아준다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진로탐색 등 빅데이터 정보 제공

원하는 일자리를 검색하면 인공지능
(AI)·빅데이터가 관련 일자리와 필요한
채용 서류, 면접 절차, 직무역량 등을 찾
아주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JobCar
e) 서비스’가 출시된다. 정부는 향후 대
화형 AI인 챗GPT를 해당 서비스에 접
목해 보다 양질의 취업 관련 정보를 제
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잡
케어(JobCare) 서비스를 2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
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
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의 상담 직원들만
구직자 상담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정부는 구직자 스스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새 서비스를
개발,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서비스 메뉴는 ‘내 직무역량’, ‘취업
시장정보’, ‘추천정보’ 등 6가지로 구성
돼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이용자가 개
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잡케어가 워크넷
에 등록된 이력서 1900만건, 구인공고
580만건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baby
bear
muu)

3 yrs old
love baking!
(forest bakery)
chef.



무우우 [muu]

놀이공원 기념품샵에서 발견된 아가곰 인형.
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곰인형을 모두
무우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부산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전격 대응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가동
4개 연안 시와 대책협의회 구성
시민 불안 해소 체계적 대안 구축
방류 상황별 대응 방안 마련키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고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부산시가 행정 역량을 결집해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28일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부산시는 4개 연안 시도(경남·울산·전남·제주)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 및 성명서 발표 등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지시에 따라 해양수도정책과를 총괄 부서로 원자력안전과 등 7개 부서가 참가한 대응반을 구성하고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망 확대,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시민 안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최근 부산연 구원이 조사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민 인식 조사에서 “방사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7%, “수산물과 해양레저관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왔다. 이에 부산시는 이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번엔 마련하게 됐다.

우선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를 가동한다. 전담팀(TF)은 해수방사능과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을 감시·분석하는 방사능 평가반을 비롯해 수산업계 피해사황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총괄반 등 4개반 13개과로 구성된다. 앞으로 TF는 상황

공유와 지원 대책 마련 및 시민 보호를 위해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오염수 방류 뒤에는 주 1회로 확대 개최한다. 오염수 방류 상황에 따라 TF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지역경제대책반과 의료지원반 등 20개 과로 확대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 실시간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망 2기와 식품 방사능 분석 장비 2기 추가 설치비 5억7000만 원을 긴급 확보해 장비 확충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 정보를 사회관계망(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실시

전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3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전남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해 주거급여 사업비 713억원을 들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 가구원 수, 주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진주시

‘야간 관광 특화도시’ 선정

경남 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2023년 야간 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사업은 지역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국가 관광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장지원형 분야에 선정된 진주시는 ‘365일 불과 빛이 흐르는 진주의 밤, 리버나이트(River Night)’라는 주제로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야간 콘텐츠, 야간경관 명소, 야간관광 여건을 개발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경남도

‘스마트 경영’ 지원 13개 전통시장 선정

경남도는 ‘전통시장 스마트경영지원사업’ 대상 시장으로 창원 명서시장 등 13개 시장을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등 시장경영혁신 지원으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40억 원(도비 16억 원) 규모로, 올해부터 4년간 40개 시장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 2월 초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13개 시장을 최종 선정했다. 시장당 1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 자문, 스마트경영 전담 인력지원 5개 분야로, 시장 특성 맞춤형 경영혁신을 돕는다.

공동마케팅 사업으로는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제작,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며, 축제 행사성 경비는 제외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광주시, 특수목적 전기차 산업 육성 1단계 성과보고회 개최.

/광주광역시

광주시 소화방재용 전기차 등 육성 박차

특수목적 전기차 1단계 성과보고회 수혜기업 매출 930억원 증가 성과

광주광역시가 특수목적 전기차(PBV)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2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유관기관, 전기차 관련 기업 2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특수목적 전기차(PBV) 산업 육성 1단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특수목적용 전기차(PBV) 산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할 특수목적 전기차 기술개발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특수목적 전기차(PBV)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 주관으로 ‘수평적 EV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2021~2022년)에서는 진공성형기 등 차체·부품 설계 및 신속 제작 장비 9종을 구축했으며, 시작차 제작, 부품개발 지원 등 총 161건의 기업지원을 수행해 매출 930억원 증가, 신규 고용 212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 3월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2023~2025년)에서는 전기차 기반 PBV유연조립 장비 등 5종의 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구축된 장비 활용 등

을 통해 PBV부품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 135건 이상의 기업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가칭)전기자동차부품산업협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발기인을 위촉해 자동차 공업부품 확대를 위한 수요·공급 부품기업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지원, 특수목적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한 단위과제별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2단계 사업의 수혜 기업은 수시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에 문의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실무를 지원할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관련 도움 자료집 2종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예방 활동 강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제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 ▲함께하는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중 처리할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호 기자 leesh0412@

대구시

‘국제섬유박람회’ EXCO서 열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 이하 PID)’가 국내·외 30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엑스코에서 오는 3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비즈니스의 막이 열린다.

지난 2002년 시작해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PID는 섬유패션산업 수출 확대와 내수 거대 활성화에 기여해 온 국내 최대 섬유 소재 비즈니스 전시회로, 새로운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첨단융복합 소재개발, 탄소중립·친환경 기반 조성, 디지털·스마트화 전환’을 이번 전시회의 개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김상복 기자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

대구시·광주시 달빛동맹 강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를 가졌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은 제6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참석 후, 대구와 광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상대 지역에 기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함께 응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군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개인의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 원이 최대이며, 500만 원 기부 시 최대 90만 8천 원의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와 150만 원(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상복 기자 ksb8100@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본격화

화순군, 다국적바이오기업과 협약

화순군은 28일 전남도청에서 WH O인력양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다국적 바이오 기업 7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싸토리우스·머크(이상 독일) ▲사이티바·퍼킨엘머(이상 미국) ▲이마(이탈리아) ▲뷰키(스위스) ▲비오메리(프랑스) 등 외국계 바이오장비기업 7개사와 화순군·전라남도 간에 체결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프

로젝트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전남 유치 협력을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시 협조기관 참여 ▲전남 유치 확정 시 캠퍼스 실습동내 우수 장비 공급 노력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협력 및 인적자원 교류 등이다.

협약 기업들은 미국, 유럽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명과학 분야 연구는 물론 의약품 생산과 분석 등 전 세계 바이오 실험·실습장비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잉크도, 노트도 세상에 단 한개 뿐... 문덕들의 ‘문화공간’

〈문구 덕후〉

🔍 르포 | ‘모나미 스토어 성수점’ 가보니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성수동에 가면 문덕(문구 덕후)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곳이 있다.

문구기업 모나미가 운영하는 ‘모나미스토어 성수점’이다. 이 곳은 일상의 기록들을 모나미 제품으로 그려 표현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

모나미는 1960년 회화구류를 생산하는 광신화학공업에서 시작해 1963년 5월 1일 모나미 성수동 공장에서 국내 최초 볼펜인 ‘모나미 153’을 출시했다. ‘모나미스토어 성수점’은 과거 성수동 공장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나미 브랜드의 역사와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평일 오후 방문한 모나미스토어 성수점은 예상과 다르게 방문객들로 붐볐다. 대다수가 MZ세대로, 매장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방문객은 600명 정도다.

매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여러 색상의 잉크를 조합해 나만의 만년필 잉크를 만들어보는 ‘잉크 랩(Ink LA

B)’이다.

스테인리스 책상에는 유리 비커와 유리막대, 수성 잉크들이 놓여있어 어린 시절 과학실을 떠올리게 한다. 자리에 앉으면 직원이 체험에 대해 10분 가량 설명한다. 이후 직접 원하는 색상의 잉크를 유리 비커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조색한 뒤 종이에 테스트해보는 식으로 체험을 하면 된다. 혼합색상 예시표도 함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색깔을 완성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색깔의 잉크가 완성되면 ‘잉크 레시피(색상 배합 비율)’와 함께 ‘나만의 이름’을 붙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레시피와 이름은 모나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향후 동일한 컬러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체험은 30분정도가 소요됐다.

잉크 랩 외에도 볼펜, 만년필 등 각 필기구에 맞는 종이(10종)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노트 제작 및 노트에 이니셜을 새길 수 있는 ‘노트 DIY 체험공간’과 볼펜 만들기 체험존이 있다. 10개



모나미스토어 성수점에 방문한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거나 직접 제품을 커스텀하고 있다. (위) 직원이 ‘잉크 랩’ 체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하루 평균 방문객 600명 정도
잉크랩서 내가 조합한 잉크 제작
향후 동일컬러 추가구매도 가능
노트 DIY·볼펜 만들기 체험존도**

의 잉크색과 볼펜의 몸통, 헤드, 버튼까지 다양하게 조합해 만들 수 있다. 만년필에 원하는 서체의 문구를 각인하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제품을 만

들 수 있다는 점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한다.

그림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구매하러 방문했다는 대학생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나미 싸인펜과 노크식 볼펜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필기구와 미술도구를 판매하는 줄 몰랐다”며 “직접 조색한 잉크를 구매할 수도 있고 볼펜도 취향껏 만들어갈 수 있어 앞으로 자주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말

했다.

모나미스토어는 문구를 매개로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현재 본사 수지점, 성수점, 인사동점, 롯데백화점 부산점 총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모나미 스토어 성수점은 연중무휴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모나미 공식 온라인 쇼핑몰 모나미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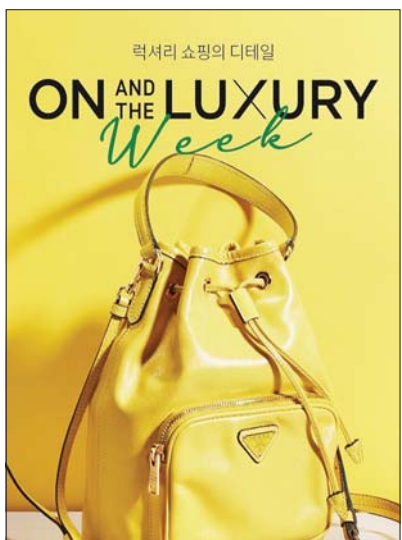
롯데온, 구찌·프라다 등 명품 최대 50% 할인

**7일까지 ‘온앤더럭셔리 위크’ 진행
300여개 브랜드... 20% 쿠폰 제공**

롯데온의 명품 전문관 온앤더럭셔리가 1일부터 7일까지 ‘온앤더럭셔리 위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구찌, 프라다, 버버리, 스톤아일랜드, 톰브라운 등 300여개 명품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온의 온앤더럭셔리는 매일 진행하는 할인행사다. 이번달에는 프라다, 구찌, 버버리 등의 전통 명품 브랜드부터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니, 오틀리 등의 브랜드까지 300여개 명품 브랜드를 모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최대 20% 할인 쿠폰 및 최대 7% 카



드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럭셔리 드로우’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온앱(App)에서 이벤트 응모가 가

능하며, 각 경품별로 1명을 추천한다.

롯데온에 따르면 경기불황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명품 수요는 견조하다. 1월 명품 매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매출이 늘었다.

이수호 롯데온 명품MD(상품기획자)는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 매출은 고공행진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고객들의 명품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 및 적립, 이벤트, 단독 물량 등의 다양한 혜택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더불어 온앤더럭셔리 명품은 고객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MD가 직접 셀러 관리 및 상품 검수까지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마트 “오늘 수확한 딸기 맛보세요”

전국 전점포서 ‘새벽딸기’ 선배

롯데마트는 지난달 23일부터 ‘새벽딸기’를 전국 전점포에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새벽딸기는 주요 산지에서 새벽 3시부터 수확해 당일 오후 2시 이후 매장으로 입고된 초신선 딸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딸기는 오전 중 수확해 다음날 점포에 입고된다.

롯데마트는 앞서 일부 점포에서 새벽딸기를 선보였다. 봄철 딸기의 품질이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딸기 농가 및 지역 농협과 협업한

결과다.

올해는 제주, 담양, 임실, 정읍 등 지역 산지 10여 곳을 추가로 확대함에 따라 지역별 신선한 딸기 공급 체계를 구축해 전점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상품화 방식과 패키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포장 작업 시 생길 수 있는 원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 없이 벌크 형태로 담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작업 방식을 개선해 손상 최소화와 선도 유지는 물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끝 줄을 제외하고 딸기를 한 방향으로 보기 좋게 담는다. /김서현 기자

SSG닷컴, 국내·외 여행 라방 편성 확대

오늘 오후 9시 보라카이 라이브방송

SSG닷컴이 2일부터 2주간 여행 카테고리 라이브 방송 편성을 확대한다. ‘럭셔리 국내 호텔’과 ‘해의 휴양지 패키지’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혜택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일 오후 9시에는 보라카이 라이브 방송이 예정됐다. 주요 관광지과 거리가 가깝고 휴양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인기가 높은 ‘해난 가든 리조트’ 패키지를 준비했다. 방송 중 구매 고객 전원에게 아일랜드 호핑투어, ‘해난 리젠시’ 리조트 중식 뷔페 이용권을 특전으로 제공한다.

6일 오후 8시에는 아테인먼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상반기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제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쓱닷컴 단독 방송이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방송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다. 방송에서는 디렉스 객실 패키지를 선착순 핫딜 가격에 선보인다.

13일 오후 8시에는 일본 인기 휴양지 ‘오кина와’ 패키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패키지 상품, 항공권 및 숙박만 포함한 에어텔 상품을 준비했다.

14일 같은 시간에는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리조트 부여’ 객실 판매 라이브 방송을 선보인다. 자녀와 함께 찾는 가족 단위 고객이 많다는 특징을 고려해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한 ‘캐릭터 룸’을 라이브 방송 최초로 준비해 주력 상품으로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티몬 공기청정기 최저가 판매

티몬이 7일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3월을 맞아 ‘공기청정기’를 온라인 최저가 판매한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 보다 2도 이상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티몬에서도 2월 한 달간(1~28일) 공기청정기를 검색해 구매까지 이어진 검색구매전환율은 전년대비 108% 높아졌고, 판매액 역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은 이에 따라 7일까지 가전수퍼빅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위닉스 공기청정기 제로 S(AZSE430-JWK) ▲위닉스 공기청정기 타워Q(ATQE430-JWK)를 비롯한 인기 모델 3종은 정가 대비 무려 5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세븐일레븐, 할인에 추가혜택 제공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마련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텀블러 활용 우수고객을 위해 ‘세븐카페 그린클럽’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텀블러를 사용해 11회 이상 커피를 구매하면, ‘세븐카페 그린클럽’ 회원으로 인정하고 텀블러 할인과 더불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텀블러나 개인컵을 이용해 ‘세븐카페’ HOT음료 구입시 누구에게나 200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세븐카페 텀블러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 받아 커피를 구입하고, 세븐앱(APP)에 스탬프 11개를 적립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 회원들에게는 세븐카페 모바일



모델이 세븐일레븐 그린클럽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하며 세븐카페 30% 할인쿠폰(2매)을 증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달 텀블러를 가장 많이 활용한 ‘그린왕’ 고객을 3명 선정해 세븐일레븐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세븐카페 그린클럽 자격은 해당 월에 한정되며, 회원가입을 위한 스탬프 적립은 매달 새롭게 시작된다. /신원선 기자

대웅제약, ‘나보타’ 독일·오스트리아 출시… 영토확장 속도

소송 약재에도 글로벌 공략 박차
에볼루스, 현지 유통·마케팅 담당
호주·싱가포르 연내 발매 예정

대웅제약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넓히고 있다. 나보타 전체 매출 80% 가까이 차지하는 해외 시장에서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유럽에서 ‘누시바’로 판매중인 나보타는 최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정식 출시됐다. 지난해 유럽 내 최대 시장인 영국에 출시하며 유럽에 첫 발을 들인 이후 빠르게 유럽 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유럽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 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보타

/대웅제약

북미와 유럽 지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누시바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내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에볼루스는 현지 미용 의료 전문 유통사인 노비아(Novvia)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발매를 준비해왔으며, 이달 중순부터 현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제품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연간 시장 규모가 6900억 원에 달하는 유럽 연합(EU)에서도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회사측 관계자는 “독일은 유럽 연합에서 가장 인구 수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누시바의 역내 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보타는 국내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2월 기준 60여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80개국 이상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나보타로 14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보다 78.5% 급증한 규모다. 이 중 해외 매출은 109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7%에 달한다.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123.3%) 성장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49%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나보타의 올해 글로벌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보타는 지난 1월 20일 싱가포르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싱가포르 허가를 획득한 국산 보툴리눔 독신은 나보타가 처음이다. 싱가포르의 보툴리눔 독신 시

장 규모는 작지만 높은 국민소득에 힘입어 미용 및 의료 산업이 발달돼 역내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볼린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올해 다 유럽 연합 국가에 추가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중국 허가 및 진출을 전망하며 최근 품목 허가를 받은 호주, 싱가포르에서도 연내 발매를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 박성수 부사장은 “역내 최대 시장인 영국에 이어 독일, 오스트리아에 발매하며 유럽 연합 시장 내 ‘누시바’ 브랜드 인지도와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누시바가 전 세계 독신 시장 2위인 유럽 연합에서 K-바이오와 K-독신의 우수한 제품력을 알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KGC인삼公, 화륜삼구 유통망 확보… 中 판매매장 10배 확대

양사 지난해 MOU… 사업 구체화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 공동개척

KGC인삼공사가 중국 최대 OTC(일반의약품 비처방의약품) 전문기업인 화륜삼구(華潤三九)와 손을 잡고 인삼공사의 중국 전용제품 출시 및 중국 내 유통망을 강화한다.

이번 협력으로 KGC인삼공사는 자사의 정관장 제품을 화륜삼구가 보유한 약국을 비롯한 화륜그룹 내 유통망을 활용하여 병원, 슈퍼, 소펄몰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게 된다.

이를 위해 KGC인삼공사의 허철호 대표와 화륜삼구의 구화위 총재는 지난 2월 24일 중국 심천에 위치한 화륜삼구 본사에서 ‘KGC인삼공사·화륜삼구 간



지난 2월 24일, 중국 심천에 위치한 화륜삼구 본사에서 KGC인삼공사 허철호 대표(왼쪽 네번째)와 화륜삼구 구화위 총재(왼쪽 다섯번째)가 전략적 협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전략적 협업’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KGC인삼공사와 화륜삼구는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화륜삼구는 중국의 국민 감기약 ‘999’의 제조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중국 대표 국유기업인 화륜그룹의 OTC 전문 자회사다. 화륜그룹은 중국의 4대 국유 기업에 속한다. 2021년 연간 매출액은 142조 규모로 유통, 소비재, 건설, 부동산, CHC(건강사업부문) 등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양사는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에 대해 공감했으며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신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다.

KGC인삼공사는 이번 화륜삼구와의 협업모델을 통해 정관장의 브랜드 파워, 연구개발 역량 등이 화륜삼구의 시장 장악력, 유통 파워 등과 결합해 중국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KGC인삼공사는 약 50만개에 달하는 중국 OTC 시장 내 화륜의 유통망을 통해 약국 등 다양한 채널로 유통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기존 1만개 수준이었던 판매 매장 수는 10만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며 비약적인 유통망 확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추진을 통해

향후 중국 내에서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업 모델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인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화교 경제권 시장도 공동 개척하겠다는 계획에도 뜻을 함께 했다.

한편, KGC인삼공사 허철호 대표이사는 화륜그룹 산하 건강식품기업인 동아아교의 정결 총재와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국 건강식품 시장확대를 위한 제품 협업 및 신규유통 진출 등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대형 민간기업 복성그룹과 미팅을 진행하고, 온라인 보건식품 판매, 중국 H&B 산업 및 홍삼의 효능 연구 분야에서 양사의 협업 기회를 발굴하기로 논의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바사 ‘스카이조스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대상포진 백신〉

4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신기록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가 국내 시장 1위를 달성했다. 4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신기록을 갱신해 국산 백신의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MS 데이터에 따르면, 스카이조스터의 지난해 국내 시장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 54%로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 1위를 달성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51%, 2분기 52%, 3분기 56%, 4분기 57%로 매분기 역대 최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경쟁 제품과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조스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세계 두 번째이자 국내 최초 대상포진 백신이다.

글로벌 대상포진 백신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가운데 2017년 정식 출시된 스카이조스터는 우수한 안전성과 면역

원성, 편의성,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 2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도즈를 달성하며 블록버스터 백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됨에 따라 글로벌 대상포진 백신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1년 28억 달러(약 3조 6000억원)였던 글로벌 대상포진 백신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10%를 상회하며 2028년에는 63억 달러(8조 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조스터 역시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020년 5월 태국에서 첫 글로벌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지난 1월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개별 국가 허가과 연내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보령 소세포폐암 신약 ‘젠텔카’ 국내 출시

미국 내 대표적 소세포폐암 2차치료제

보령이 새로운 기전의 소세포폐암 신약 ‘젠텔카주’를 국내 정식 출시했다.

젠텔카는 스페인 제약사 파라마에서 개발한 항암신약으로, ‘1차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소세포폐암’에 쓰인다.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고, 이번 정식 출시를 통해 의료기관에 본격적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이미 2020년 7월에 발매가 이뤄졌다. 젠텔카는 미국 내 대표적인 소세포폐암 2차치료제로 자리잡아 지난해까지 5억3500만 달러(약 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현재 소세포폐암 환자 중 40% 이상의 환자들이 2차 치료제로 젠텔카를 처방받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17년부터 보령이 젠텔카에 대한 판매 및 유통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2차 이상 소세포폐암 치료제 종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젠텔카의 등



소세포폐암 신약 젠텔카

/보령

장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란셋 온콜로지지에 실린 젠텔카 허가 근거 문헌에 따르면 전체 환자군 기준 객관적 반응을 35%, 평균 반응 지속기간 5.3개월, 매 3주 간격 1회 투여받는 투약 용이성,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과 같은 임상적 유익성으로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되던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젠텔카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되고 있는 치료제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 분만 2000건 달성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가 분만 2000건을 달성했다. 개소 이후 불과 4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지난 달 2000건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개소 4년만이자, 지난 2021년 12월 분만 1000건이 넘는 이후 약 1년 만에 이룬 성과로 저출산 시대에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고령 산모를 포함한 고위험 분만 비율이 약 70%에 달해 고위험군 임신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검증됐다.

병원측은 모아센터가 개소 4년 만에 분만 2000건을 달성한 것은 임신부의 출산과 산후관리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 덕분으로 분석했다.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분만 건수가 늘어나고, 산모들의 니즈가 다변화됨에 따라 추후 84병동 산모 병상 확대는 물론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확대를 통해 임신부에게 최적의 공간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삼성전자, 독일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펼쳐

삼성전자가 독일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한중희 부회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 한중희 부회장(왼쪽)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H-점프스쿨' 10기 발대식 개최

현대차그룹이 청소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10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한용빈 현대차그룹 부사장, 이의현 사단법인 점프 대표 등 행사 관계자와 임직원 멘토, 10기 대학생 멘토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에 거주 중인 대학생 멘토 200여 명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현대차그룹

KAJA, 최대열 11대 회장 선출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최대열 아시아경제 기자(사진)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아시아경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한국기자협회 아시아경제 지회 회장을 맡았다. 같은 해 10월부터 협회 올해의 차선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재웅 기자 juk@



지프 “유럽 올해의 차 ‘어벤저’ 구경하세요”

지프는 오는 3월 14일까지 전국 지프 전용 전시장 7곳에서 어벤저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어벤저는 지프 브랜드에서 처음 만드는 순수 전기 SUV다.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사전계약 한달만에 1만대 돌파, 브랜드 최초로 2023 유럽 올해의 차에도 선정됐다. 국내 출시 일정은 미정이다. /지프

중진공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가입자를 모집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사업종료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후속사업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개편했다.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의선 회장, 12개국 대사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현대차그룹〉

워싱턴 주미대사 초청 행사 참석 세계박람회 구현 최적 도시 강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아프리카·카리브해 주요 국가 대사들에게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지지를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 주최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 주요국 주미대사 초청 행사에 참석해 각국 대사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초청행사는 아프리카·카리브해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돈독히 하고, 부산엑스포 주제와 개최 의의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토고,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 바부다, 마셜제도 등 12개국 주미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이 로널드 샌더스(Ronald SANDERS) 앤티가다부다 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가 참석했다.

정 회장과 함께 장재훈 현대차 사장,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신재원 사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부산은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이 많은 준비된 국제도시”라며 “정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국제사회 일원들과 함께 2030년 해양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기후변화 위기 등을 극복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준비 중인 부산세계박람회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다양한 위기 극복과 단기간의 경제성장 등을 이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부산이 세계박람회 의미 구현을 위한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

SKT,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2개 부문 수상

시각장애인용 내비 ‘지아이 플러스’ AI 기반 위치분석 플랫폼 ‘리트머스’

SK텔레콤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수여하는 ‘GSM 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MO) 2023’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일(스페인 현지시간) 밝혔다.

먼저 ‘접근성·포용성 위한 최고의 모바일 사용 사례’ 부문으로 즉위인공지능(AI) 기술 ‘VLAM’을 적용한 고정밀 위치 기반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지아이(G-EYE) 플러스’ 개발 관련해 수상했다.

다른 하나는 ‘도시를 위한 최고의 모바일 혁신 사례’ 부문으로 AI 기반 위치분석 플랫폼 ‘리트머스’ 관련해 상을 받았다.

SKT는 LBS테크·사피온 코리아와 함께 ICT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ESG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성·포용성



SK텔레콤은 세계적 권위의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LOMO) 2023’에서 소셜 벤처 LBS테크·AI반도체 기업 사피온 코리아와 함께 위치 즉위 AI 기술 ‘VLAM’을 적용한 고정밀 위치 기반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G-EYE 플러스’로 수상에 성공했다고 1일(바르셀로나 현지시간) 밝혔다. /SKT

위한 최고의 모바일 사용 사례’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SKT와 LBS테크·사피온 코리아는 기존의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이 대부분 GPS 신호를 기반으로 작동해 정확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

음에 착안,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글라스, 디지털 트윈 등을 위해 개발한 VLAM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에 적용해 정밀한 위치 측위로 실효성 있는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G-EYE 플러스’를 개발했다.

‘G-EYE 플러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반바퀴만 돌리면 평균 1m 오차로 현재 사용자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G-EYE 플러스’를 사용함으로써 건물 인근이 아닌 출입문 또는 진입로 바로 앞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SKT가 수상한 분야는 ‘도시를 위한 최고의 모바일 혁신 사례(Best Mobile Innovation for Cities)’로, ICT를 바탕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기술이나 서비스에 주어지는 상이다.

SKT의 AI 기반 위치분석 플랫폼

했다.

정 회장은 각국 주미대사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 전동화 체제로 전환 중인 미래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아울러 현시대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보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방안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8월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인 부산엑스포유치지원TF를 구성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현지 방문과 방한 인사 면담 등을 통해 20여개국 고위급 주요 인사들을 40여회 접촉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운영차량으로 제공한 제네시스 G80·GV70 전동화 모델 등에는 부산엑스포 홍보문구를 랩핑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트라 리스본무역관 개소… “수출기회 발굴”

유정열 사장 “현장 애로 적극해소”

KOTRA(코트라)는 지난달 2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리스본무역관 개소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정열 코트라 사장, 조영무 주포르투갈 대한민국대사, 루이스 엔히크스 포르투갈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후이 비냐스 포르투갈 외교부 차관보, 포르투갈 전현직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170여명이 참석했다.

코트라와포르투갈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날 개소식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양국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교역량은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2022년 기준 두 배 이상 커지며 수출기업들의 지원 문기가 꾸준히 늘었고, 포르투갈 관계부처의 무역관 개소 요구도 그만큼 컸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현지 시장의 수출 기회를 발굴하고 통상 규제 등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수출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인사

◆**유진그룹** ◇사장 승진 △그룹경영혁신본부 유석훈 ◇상무 승진 △건자재담당 성백민 △레미콘담당 손현대 ◇상무보 선임 △남부권역장 박철수 △회계팀장 심재영 △홍보팀장 임진택 〈승진 및 선임-동양〉 ◇전무 승진 △외주구매·예산건적담당 권용대 △경영관리본부장 황승률 ◇상무보 선임 △인사팀장 안준수 △재무기획담당 겸 성장전략실장 유정민 △건재사업본부 사업운영팀장 황부익 〈승진 및 선임-유진투자증권〉 ◇상무 승진 △부동산개발실장 김관석 △리서치센터장 이승우 △챔피언스라운지 금융센터장 조희선 ◇상무보 선임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구환 〈승진 및 선임-유진투자증권〉 ◇상무보

선임 △기획관리본부장 장동훈 △정보전략영업본부장 장만우 〈승진 및 선임-유진로지스틱스·유진소닉〉 ◇전무 승진 △딜리버리사업본부장 유재승 ◇상무 승진 △수송본부장 배재일 ◇상무보 선임 △기획팀장 국문일 △재무팀장 장종식 〈승진 및 선임-동화기업〉 ◇상무 승진 △지배인 김용원 〈승진 및 선임-유진엔〉 ◇상무 승진 △관리담당 윤남일

부음

▲유육자씨 별세, 박인수·은주·은숙씨 모친상, 장광근·이석용씨(NH농협은행장) 장모상=1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월 3일, 장지 서울시립송화원. ☎ 02-2030-4444

엔지니어 마스터 II 다이버 크로노미터
더 많은 보호 기술을 통합하여 강력한
다이버 워치 궁극의 강인함과 극한의
정밀도를 느껴보세요.



www.ballwatch.kr
볼워치 부티크 청담 1544-7593

BALL
OFFICIAL  STANDARD
Since 1891

집값의 정상화는 무슨 뜻일까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A와 B는 친구 사이였다. 둘의 경제적 형편은 시작부터 달랐다. 평범한 직장인인 A는 취직, 결혼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서 서울 번두리에 3억원 짜리 낡은 아파트를 간신히 마련했다. 그에 반해 B는 적잖은 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아서 강남의 아파트를 10억원에 마련했다. 출발점이 달랐지만 친구 사이에 위화감은 크지 않았다. 둘 다 아직 젊었고 시작이 어땠든 남은 생을 살아갈 방향성이 중요했기에 당연히 서로의 차이를 인정했다. 문제는 그 직후에 닥쳐온 집값 폭등 시기였다. 불과 몇 달 사이 거래가 절멸했고 수요는 과장되었다. 그 후 연달아 다른 법안이 발표되었고 세상이 달라졌다.

A의 낡은 3억짜리 아파트는 짧은 기간 동안 12억이 되었다. 그에 반해 각종 규제의 표적이 되었던 강남의 10억짜리 집은 최고가 24억을 찍었다. 상승률은 달라도 썩집과 비싼집이 동시에 오르자 두 친구의 상대적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3억과 10

억의 차이는 컸었다. 그러나 12억과 24억의 차이는 두 배의 차이임에도 묘하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A에게 그 12억짜리 집은 그가 가진 전부였고 그마저도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었지만, 그럼에도 집값이 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었다.

A의 자부심도 매일 최고점을 경신해 갔다. 그들 사이에 당초 존재했던 경제적 차이는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러나 파티는 길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더 많이, 더 나중에 오른 곳일수록 그 하락이 가팔랐다. 한바탕 시장이 곤두박질 친 뒤 A의 집값은 실거래가 5억원대까지 내려갔다. 물론 당초 매입가격을 고려하면 A는 여전히 큰 이익을 본 셈이다.

만일 A가 여전히 무주택자였다면 그조차도 요원했을 것이나 그의 열패감은 무주택자들보다 심각했다. 같은 기간에 역시 하락한 B의 강남 집값은 20억 안팎이었다. 그 둘의 격차는 과거에 각각 3억과 10억이었을 때보다 더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점은 불과 몇 년의 비정상적인 시간 동안 A와 B는 서로의 차이를 잠시 잊었던 것이다.

B는 상대적으로 편했다. 그에게는 강남 아파트만이 자산의 전부가 아니었을 뿐더

러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에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A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친구인 A도, 과거의 정부도, 지금의 정부도, 그 때나 지금이나 힘든 무주택자들까지도 모두 적으로 느껴졌다. A가 다시금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짧은 환상이 깨진 후 찾아온 박탈감을 떨쳐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오랜 세월 이어지는 완만한 우상향 그래프였다면, 짧은 부동산 폭등기는 그 한복판에 높게 솟은 낙타의 혹과도 같다. 시장을 넓게 멀리 볼수록 그 낙타의 혹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언제나 단기간의 등락에 연연한다. 그 혹의 꼭대기를 정상가격으로 기억하고 있는 한 스스로의 자산 관리에서도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양극화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가? 경제적 계층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실이고 모두를 위해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 와중에도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집값의 정상화를 기다린다. 그들이 말하는 정상화는 정상(正常)일까? 혹은 정상(頂上)일까?

/로이에 아시아컨설팅 대표

원인제공자가 바뀌었다면



기지수첩
이승용
(금융부)

전쟁이나 싸움이 발생하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원인제공자를 찾는다. 이후 시시비비를 가려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처벌까지 이어진다. 역을 한 점도 발생하겠지만 결과만 본 사람들은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라고 대부분 이야기한다.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태풍의 중심인 은행권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내부적으로 ‘돈잔치’를 벌였다. 성과급으로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450%까지 받아갔다. 지난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은 높은 이

자를 부담했지만 결국 이자가 은행들의 공간을 채워준 것이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은행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직접적으로 “은행은 공공재”라고 밝히면서 서민들의 이자 감면, 가산금리 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 최근 한 달 사이 고삐를 바짝 당겼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가 선을 넘고 있다는 의견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금융지주들은 엄연한 민간기업이자 주식회사인데 과도한 개입으로 은행권 전체를 위락파락해 금융지주들의 가치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 쏟아내는 대책 역시 ‘속빈 강정’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은행권을 장악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

은행권이 ‘돈잔치’를 벌인 것은 틀린 말

은 아니지만 은행권이 지난해 원인제공에 발미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못매를 맞을 일은 없을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다.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원이 넘는 금융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고 ‘귀족노조’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은행권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은 이때부터 시작됐고 이번 ‘돈잔치’를 벌이면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진 것이다. 은행권이 잇속만 챙기지 않고 먼저 고객들과 서민들한테 배풀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터. 눈앞의 이익만 쫓기보다는 다가오는 이익을 계산해 움직이는 것도 필요한 법이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일 (음 2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수확한 농산물을 주변과 나눈다. 48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살 수 있다. 60년생 2보 전진을 위해 기꺼이 1보 후퇴. 72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84년생 길 가다가 행운을 얻는다.



37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귀인. 49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61년생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 73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5년생 배움에는 세월이 없으니 모르는 것은 공부.



38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50년생 굳은살이 생겨서 아픈 줄도 모르겠다. 62년생 철들만 하니 또 엉뚱한 일이 생긴다. 74년생 부모님의 안부와 건강을 챙겨야 할 것. 86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39년생 협력자를 먼저 구하고 일을 시작. 51년생 지금 집을 팔면 사면초가(四面楚歌) 된다. 63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75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인데. 87년생 너무 일이 잘 풀리니 걱정스럽다.



40년생 하늘이 맑고 푸르니 마음도 상쾌. 52년생 배우자의 반지라가 크게 느껴지는 날. 64년생 세상이 완벽할 것은 없으니 안타까워 말라. 76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88년생 나의 단점을 고쳐야 발전하니.



41년생 누구에게나 비취주는 태양에 감사. 53년생 자식이 좋은 일이 있으니 마음이 흐뭇하다. 65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가 성사. 77년생 거울은 혼자 못지 않는다. 89년생 새롭게 생각을 바꾸니 얹혀있던 실태라가 풀린다.



42년생 변화무쌍한 날이니 대비를 철저히. 54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66년생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공부를 하면 돈 벌려는 자세가 나온다. 78년생 새로운 만남을 조심. 90년생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일이 안 잡힌다.



43년생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당선의 승려. 55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67년생 명색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 7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 91년생 구멍가게라도 오후에 매출 늘어간다.



44년생 집수리 결심만 열 번을 넘겨 한다. 56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 어라. 68년생 겸손하면 주머니 알고 도와주니 마음이 잘 다스려라. 80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라. 92년생 부모님 경제적 어려움을 살펴보라.



45년생 사돈의 무시가 지록위마(指鹿爲馬)처럼 강하다. 57년생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 69년생 천년만년 기는 사랑은 없는 걸까. 81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길이 보이게 되니 여유를. 93년생 결혼하고 사돈끼리 매일 싸움의 연속.



46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58년생 최선의 리더십은 술선수범임. 70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82년생 수레가 빠져나기만 바퀴자국의 흔적이 남는다. 94년생 고정관념이 비생산적일수 있으니 생각을 좀 넓혀보라.



47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관리에 신경. 59년생 헛된 희망에 비싼 값을 지불. 7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83년생 시작한 일에 이익이 발생. 95년생 뛰어난 사람은 어디가든 남중지추(囊中之錫)이니 평소 실력을 연마해야.



김상회의四季 오늘이 내일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사이다. 오늘은 내일이 된다. 그렇게 치자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를 품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는 영원히 오늘일 수도 있다. 이에 붓다는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생각지 말며 오직 현재에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트이지 못한 우리 중생들은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서양에서도 오랜 옛적부터 점성술이 있어왔고 역사에 이름을 날린 예언가들은 대부분 점성술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대표적 인물이 노스트라다무스일 것이다. 의사이기도 했던 그는 지금 돌이켜봐도 오싹할 정도로 몇백년 뒤의 일까지도 시의 형태로 예측을 했다. 물론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의미부여도 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예언사라는 것이 직설적이기 보다는 속성상 은유와 함축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현령비현령이라 해도 허망한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동양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바탕을 둔 역명이 학문으로 발전했다. 별자리의 위치와 빛깔 등을 보면서 자미두수와 하여 서양의 점성학처럼 예측을 발전시켜 온 것은 동서양미래예측의 공통분모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당사주 기문둔갑 육임 매화역수 주역점등 다양한 방법을 창안하고 발전시켜왔다. 특성을 발휘하면서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분야들이다. 모든것이 시장원리라 효용성이 떨어지면 쇠퇴하고 소멸되기 마련인데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효용성 증명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양의 발전한 사회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미래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향후 펼쳐질 인간사회의 변화양상을 학문적으로 펼쳐나가기 도 하는데 이것역시 증빙도구가 다름 뿐인 미래 예측학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2		1
	1		7	9	
	5	2	4		
6					4
		6	8	2	
	7	4		6	
2			7		
					1

		6			
				9	
		3	6		8
	5		6	1	8
	1	7		3	2
	3	2	9	4	7
1			3	6	
		9			
				3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투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정답

7	1	2	3	4	5	6	7	8	9
8	6	4	9	2	5	1	7	3	8
9	3	5	1	8	7	6	4	9	2
2	9	7	8	1	9	4	6	7	3
6	7	8	4	9	2	5	1	7	3
4	9	1	7	6	3	2	9	8	7
9	8	6	2	7	4	1	3	5	9
1	4	7	9	3	8	6	2	5	1
3	2	5	6	9	1	8	7	4	3

2	7	4	1	2	8	9	9	6	7
2	1	9	9	2	6	7	4	8	9
6	9	8	9	4	7	2	1	3	5
9	2	1	7	6	3	4	8	9	7
7	4	6	8	1	9	2	5	1	3
8	2	7	2	9	4	6	1	9	7
4	9	9	6	7	1	8	2	3	5
1	6	2	2	8	9	9	7	4	3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라이프]
잉크도, 노트도
세상에 단 한개
문덕들의 ‘문화공간’
L1

metro[®]

Life

[바이오]
대용제약
‘나보타’
영도 넓힌다
L2



반도체학과 지원에도 의대 쏠림 여전... 원인은 ‘소득 격차’

이공계 ‘인재 블랙홀’ 의대 초강세
대기업 연계 등 반도체학과 지원에도
고소득 전문직 의사 선호도 유지될 것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정책에도 대입에서 의대 초강세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직업별 ‘소득 격차’가 꼽혔다. 의대 열풍 과열은 초등 단계까지 이어지면서 ‘초등 의대반’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공계 인재 블랙홀로 떠오른 ‘의대’가 앞으로도 선호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에 힘을 싣더라도 직업별 소득 격차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대입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초강세 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올해 조선대 치의예과는 690.0대 1의 경쟁률을 달성하면서 2023학년도 수시·정시 통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시 전문인 종로

학원의 분석에 의하면 약대를 제외한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모두 서울·수도권에서는 추가모집 인원이 ‘0명’으로 마무리돼 인기학과임을 입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선호 현상은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된다”며 “의사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는 취업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현실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시장이 어려운 만큼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존재하지 않는 전문직인 의사의 선호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해석이다. 이투스교육 관계자 역시 취업 후 소득 격차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갖춘 이과생들이 의대로 빠지는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0년 발간한 한국의 직업정보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의 평균소득 수준은 최상위권으로 집계됐다.

소득 격차가 상당하다보니 정부와 기업이 나서 반도체학과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의학학 계열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졌다. 특히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모집인원 10명 대비 등록포기율 130.0%를 기록하면서 모집인원보다 많은 13명이 등록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임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 대기업 연계 등의 호조건에도 반도체 관련학과는 의학학 계열에 밀리는 구도가 확인됐다”며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적인 정책들이 구체화돼야 하지만, 반도체 인재 육성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의학계 쏠림 현상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더 촘촘히, 더 세심하... 시민 복지 증진 나선다 경기도 11개 공공기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 모두돌봄센터
제도 외 사각지대 돌봄 강화
영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적 돌봄 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에 나선다.

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서사원은 올해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아이 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사회서비스 생태계 지원체계 강화 ▲안전경영 및 책임경영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서사원은 지역 사회 중심 통합돌봄 기능과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역할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작업치료사가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사원

반영해 종합재가센터의 신규 명칭을 ‘모두돌봄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서사원은 설명했다.

종합재가센터의 서비스 비율은 기존

장기요양 75%, 돌봄SOS 25%에서 모두 돌봄센터로 변경 후 장기요양 40%, 긴급돌봄 60%로 기능이 전환된다. 제도 내 돌봄 중심에서 제도 외 사각지대 돌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서사원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사원은 영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협력사업을 벌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서사원은 소속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대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손잡고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생태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서사원은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0

‘경기바다함께해’ 업무협약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1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등 도내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경기바다조성에 나선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시 등 연안 5개 시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은 28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바다 함께해(海)’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공공기관의 사회 환경적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에 대응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해양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참여 공공기관은 경기도 내 특정 항 포구와 해안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청소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협약기관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11개 공공기관에서 연 4회 이상, 총인원 680명이 해안가 청소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정책 수립 ▲참여기관 평가 ▲우수참여기관 포상 ▲홍보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등 연안 5개시는 ▲활동 대상지 지정 및 관리 등 공공기관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지원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 천호·상계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고 13층, 183세대 공급 목표

서울시가저중주거지의창의적디자인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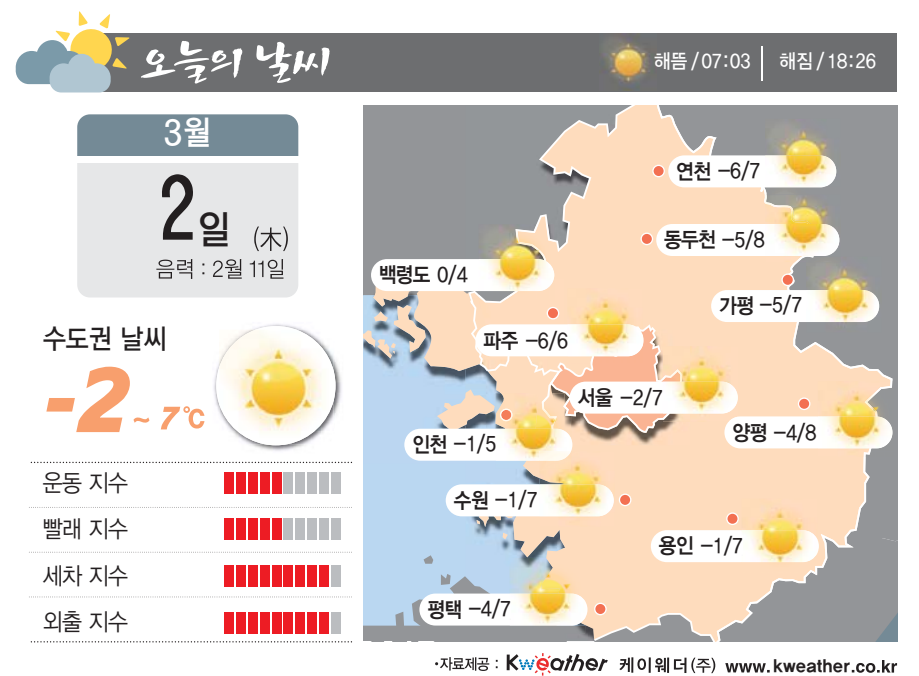
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를 완화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한 강동구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137㎡,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8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노원구 상계동 모아주택 사업 계획안도 지난달 말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4·7호선 노원역과 가까운 노원구 상계동 322-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5721㎡,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된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103세대 공급을 목표로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훈련 마친 WBC 대표팀 귀국...드디어 ‘완전체’ 된다 /사진 뉴시스
▲베이스볼아메리카 “WBC 전력, 한국 7위”...일본은 2위

▲슈틸리케, 클린스만에 황당 조언...“분단탓 韓축구 공격 약해”
▲손흥민·윌러, 엇갈렸던 FIFA 올해의 남자 선수 투표



▲르브론, 또 부상...갈길 바쁜 레이커스 비상 /사진 뉴시스
▲‘한국 첫 방문’ 에드먼 “한일 라이벌 관계 알고 있어”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은 교육부와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병설유치원 및 돌봄교실 2,265개를
전국에 신설 또는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는
더 오랜 시간까지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가 문을 엽니다

“밤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
KB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부모님이 안심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방학기간까지 돌봄 시간이 확대된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입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 KB금융그룹**